

연구보고서

# 교육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외대의 창조

(제2기 미래위원회 주요사업 주제별 연구보고)

2016. 8.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위원회



- 공 백 -

연구책임: 김원호 미래위원회 위원장

공동연구: 미래위원회 위원(10인)

권원순 위원(경제학부 교수)

명희준 위원(생명공학과 교수)

박치완 위원(철학과 교수)

정상철 위원(일본어통번역학과 교수)

최호성 위원(영어통번역학부 교수)

곽덕훈 위원(시공미디어 대표이사)

권태면 위원(KOICA 사업개발이사)

박재현 위원(매일경제신문사 전무이사)

송경순 위원(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임호준 위원(헬스조선 대표이사)

# 교육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외대의 창조

2016. 2. 24./2016. 8. 25

미래위원회

## HUFS의 비전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 · 연구기관으로 도약!

## 사회 패러다임 변화

시대구분	PC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초연결 시대
경제 패러다임	Industrial Economy	Digital Economy		Creative Economy
IT 패러다임	디지털화, 전산화	온라인화, 정보화	소셜화, 모바일화	지능화, 개인화, 사물정보화
IT 이슈	PC, PC통신, 데이터베이스	초고속 인터넷, www, 웹서버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빅데이터, 차세대PC, 사물네트워크(M2M)
핵심분야 (서비스)	PC, OS	포털, 검색엔진, Web 2.0	스마트폰, 앱서비스, SNS	미래전망, 상황인식, 개인맞춤형 서비스
핵심자원	물리적 자산, 노동, 자본	지식, 정보		융합, 창의성, 디지털콘텐츠, 공공정보(DB)
IT 비전	1인 1PC	클릭 e-Korea	손안의 PC, 소통	ICT의 창조적 활용 新 가치창출

출처: 광덕훈(2016)

## 지식창조시대 직업의 변화

**“20년 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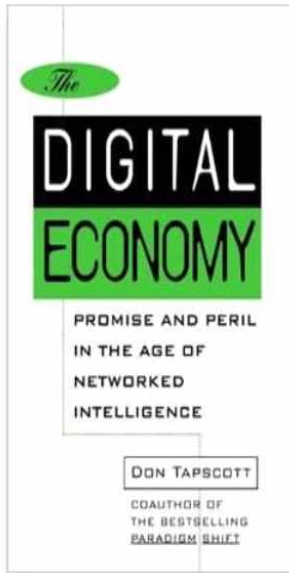
Carl B. Frey &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2013

**“전세계 7세 아이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WEF, *The Future of Jobs*, 2016

## 구시대 산업과 직종의 소멸



“

The fact that we're entering a new economy is of little consolation to that displaced worker and his or her family.

How will we manage the transition to new types of work work and a new knowledge base for th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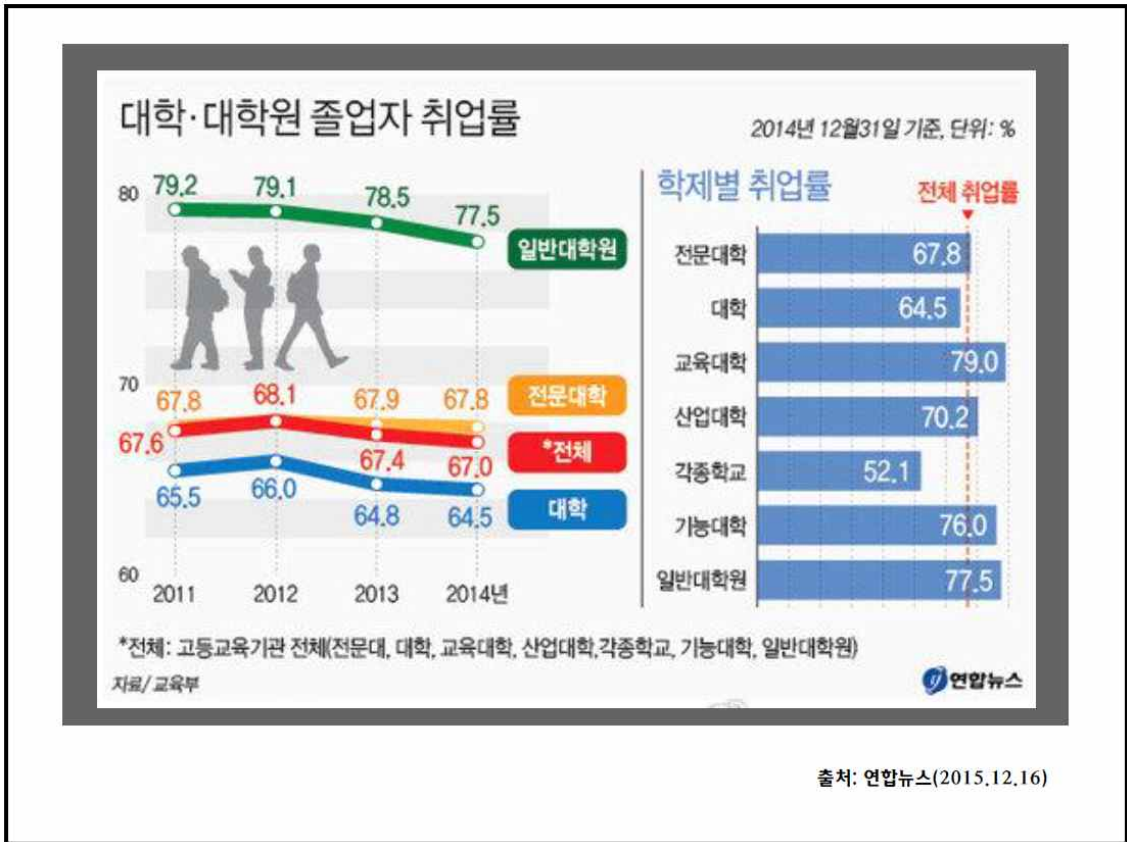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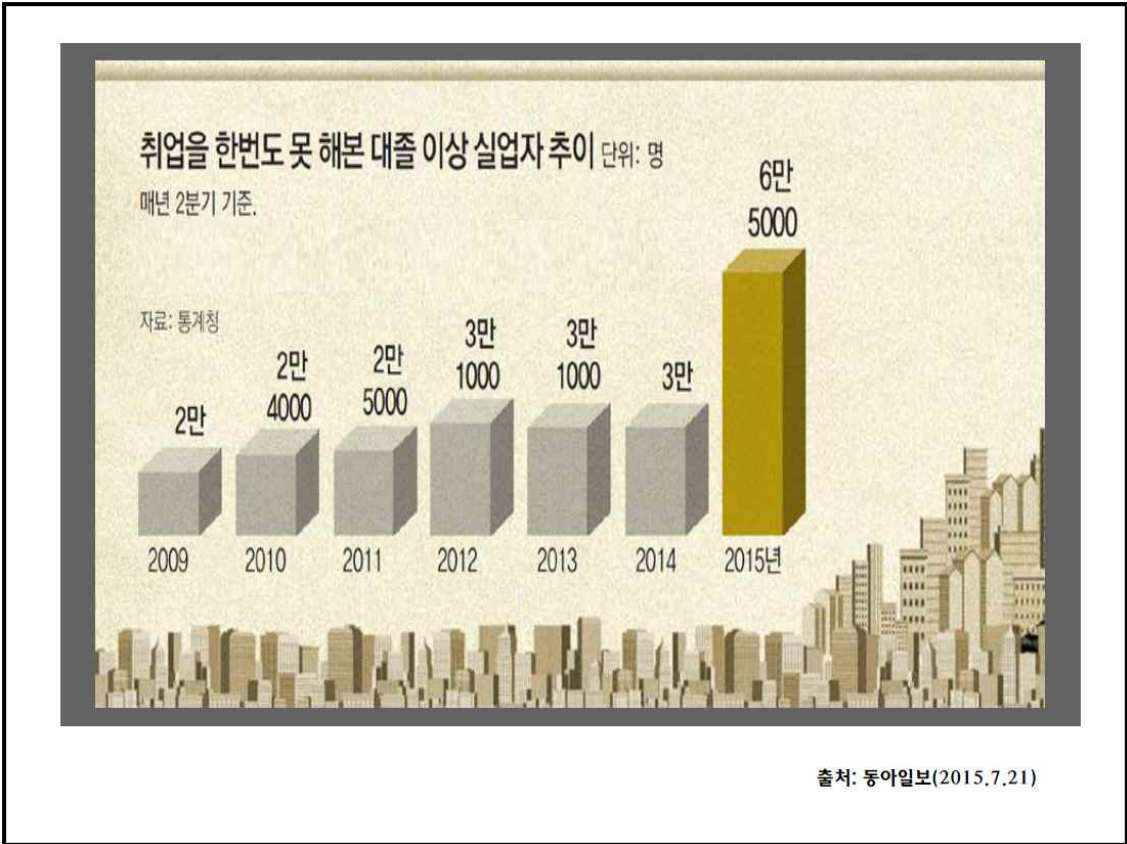
The Digital Economy, 1995

”

출처: Tapscott(2015)



출처: 머니투데이(2016.3.16)



## 글로벌 인구 증감 차별화

GAINERS			
Australia	Israel	New Zealand	
Norway	Sweden	Switzerland	Singapore
SUSTAINERS			
Canada	Denmark	Franc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DECLINERS			
Austria	Belgium	China	
Finland	Germany	Greece	
Italy	Japan	Netherlands	
Portugal	Russia	<b>South Korea</b>	
Spain	Taiwan	Eastern Europe	
The rest of the developed world			

출처: Dent, Jr.(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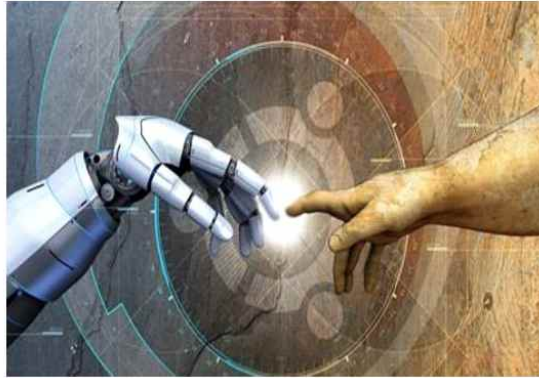
## 이대로 가면 국내 4년제 대학 68곳 문 닫아



출처: 중앙일보(2015.12.15)



WHAT DOES ALL THIS MEAN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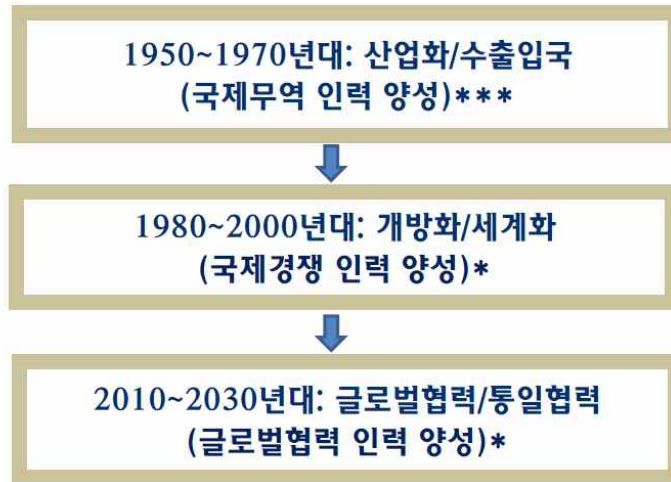
**HUFS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that survives.”**

**“It is the one that is the most  
adaptable to change.”**

- Charles Darwin

## 시대의 변화와 HUFs의 역할 평가



## 시대적 도전과 현실



## 미래: 제1의 인터넷 물결 (The Future: The First Wave of the Internet)



Social Web

Mobility

Big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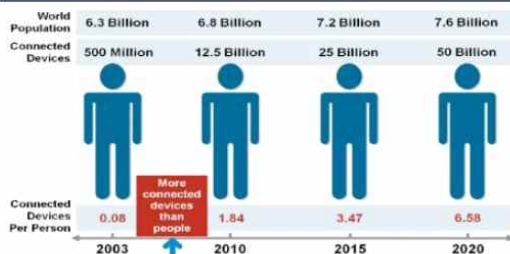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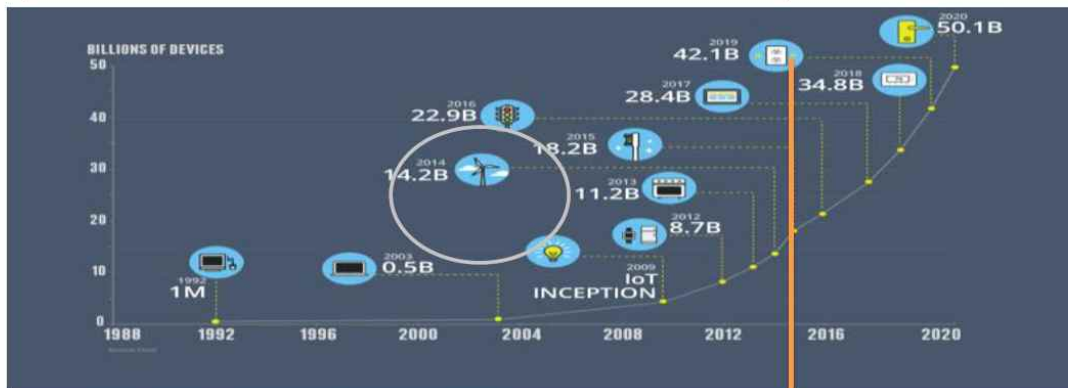
Internet of Things

The Cloud

Drones & Robotics

출처: Tapscott(2015)

## 인터넷 접속 기기의 대량 증가 (Massive Growth in the Number of Connectable Devices)



Today  
Things today are made to connect

Source: NCTA, Cisco

출처: Basir(2015)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대학

글로벌 Star Professors University 출현

웹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대학 출현

맥유니버시티(MacU) - 프랜차이즈 커뮤니티 대학

글로벌 학점은행제 인증 대학 출현

Experience University -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교육

평생교육 목적의 웨어하우스 대학(Warehouse U)

사내 대학 출현의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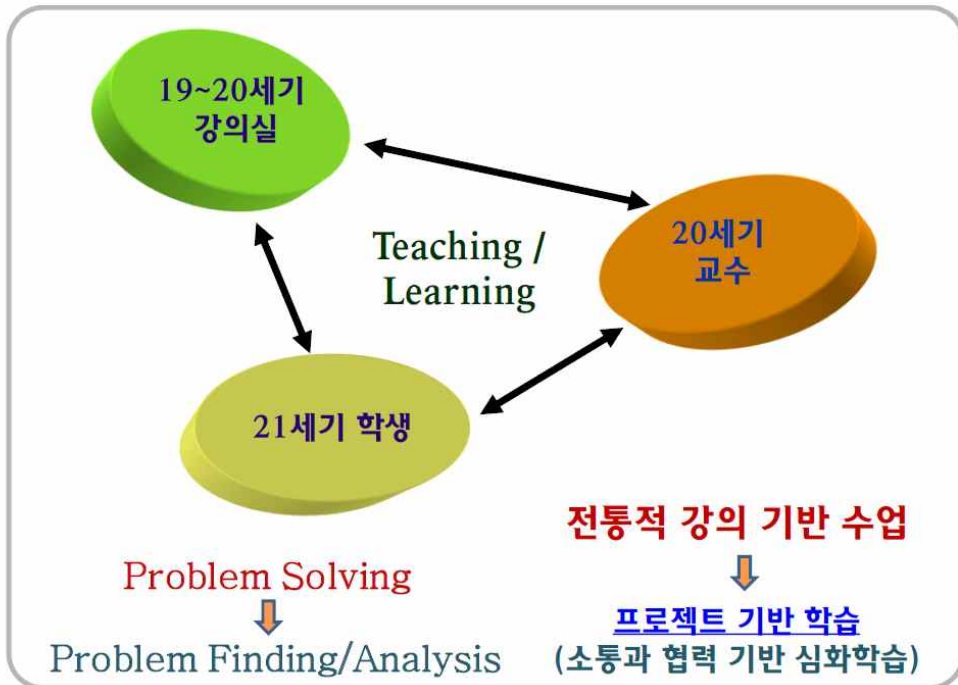
Student-led University - 대학의 목표를 학생들이 결정

MOOCs등의 글로벌 강의 보편화로 대학의 경쟁력 심화

출처 : 광덕훈(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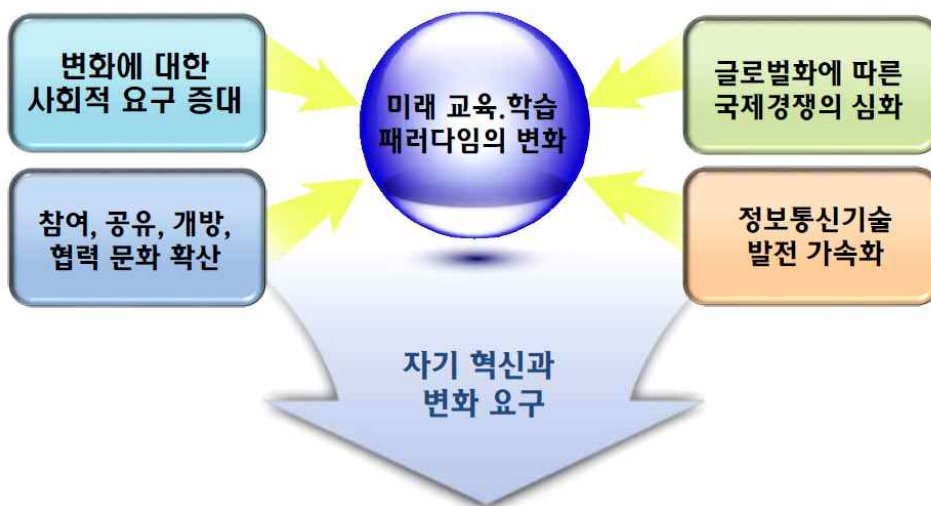
**세계 45개 언어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한다면  
HUFS는 해낼 수 있습니다**

## 지금 우리의 교육환경



출처 : 광덕훈(2016)

## 혁신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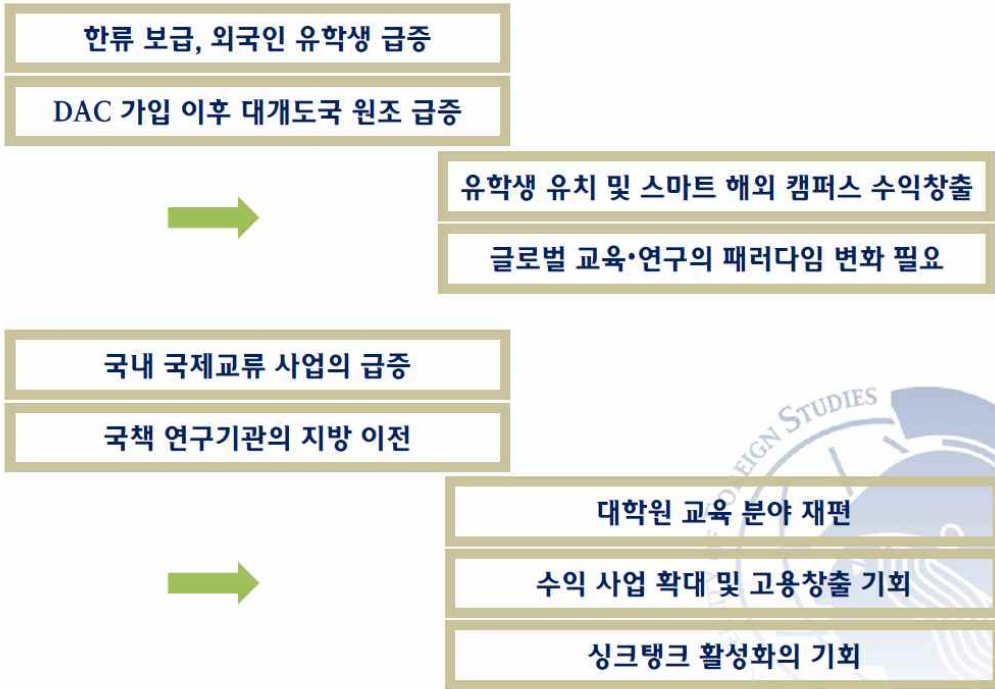


출처 : 광덕훈(2016)

Re-Branding of HUFS:  
 교육수요 변화, 기술변화, 글로벌화의 당위성 반영

- 학제의 Uniqueness 구축
- 싱크탱크 기능의 Uniqueness 구축
- 수익사업의 Uniqueness 체제정비
- 공간 운영의 효율화 (송도, 자곡동 포함)

기회와 대응



**인간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혁신하고  
세기의 Paradigm을 흔들어버리는  
기술이 미래를 움직인다.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을 먼저 읽은 자가  
미래를 창조한다.**

- World Future Forum, 한국과학창의재단

### 미래위원회 연구주제



기본 Mindset의 변화 전제:  
'5 K' 의 극복

In Korean = 강의 언어

For Korean(s) = 대상 학생

In Korea = 캠퍼스 위치

By Korean(s) = 교수 주체

Of Korean(s) = 운영 주체

## 미래위원회

### ■ 주요과제 보고서

연번	보고서 제목	교내토론회	홈페이지 탑재
1	영어교육 강화 방안	5.17(화)/6.13(월)	2016. 8월말
2	대학원 운영 개선 방안	5.31(화)	
3	싱크탱크 기능 활성화 방안	6. 1(수)	
4	스마트 해외캠퍼스 운영 방안	6. 9(목)	



## <영어교육 강화 방안> 보고서

### 1. 현황 및 문제점

- 외대졸업생의 영어능력에 대한 사회 평가 저하
- 외대 교과과정에서 영어교육의 비중이 낮음
- 교내에서 영어는 국제어가 아닌 45개 언어 중 하나로 인식
  - 영어교과과정의 확대가 타언어의 위축으로 인식

### 2. 개선방향

-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신입생 및 학부모의 진학 선호도 제고
- 통합적 영어교수와 내용중심 지도에 의한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
- 외국인 학생과 교수진의 제반 활동 여건 개선

### 3. 실행방안

- 여건 성숙화, 중간평가와 함께 전공별 단계적 실행
-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영어전용기숙사 운영, 신입생 동시 수용 추진
- 학교생활 기본 (영어)능력 미달 학생을 위한 교내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전공분야 원어(영어) 강의 확대
  - 전공별 해외석학(현·퇴임) 영어 온라인 강좌 혼합 운영
- 내외국인 교수의 동등 대우

### 4. 추진일정

과제	단기 (2016~17)	중기 (2018~21)	장기 (2022~25)
영어교육 교과과정 개편			
개편 교과과정 적용			
교내 연수기관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영어전용기숙사/ 몰입교육 운영			
대학/학과별 영어강의 비중 확정			
교.직원 채용기준에 동 정책 반영			
내외국인 교수 동등 대우 영어공용캠퍼스 구축 (수업 및 교수, 행정업무 등을 영어로)			

## <대학원 운영 개선 방안> 보고서

### 1. 현황 및 문제점

- 정원 미충원 ➡ 재정 손실
- 현 대학원 구조, 시대 트렌드에 미흡
- 장학제도 개선 필요
- 학과 사무 및 연구 공간 부족

### 2. 개선방향

- 사회적 수요 부합 전공 신설, 전문/특수 대학원 신설
- 기존 대학원 체제 및 전공별 평가, 특성화/차별화 기준으로 통폐합
- 내국인 학생 장학금 인상 및 외국인 학생 외부 장학금 유치
- 대학원 신설을 위한 교사(校舎) 마련

### 3. 실행방안

- 기존 경쟁력 갖춘 대학원 내외연 강화
- 사회적 수요 부합 전문/특수 대학원 신설  
예) 글로벌한국학대학원 / 글로벌문화컨텐츠대학원 / 미래산업대학원  
디지털융합인문학대학원 / 노년학(Gerontology)대학원
- 충원율 저조 학과 통폐합/조정 학문 기초 공통 교육과정 운영
- 일반대학원 논문지원장학금 전 대학원으로 확대 -> 연구력 제고
- 구 우리은행 이문동지점 부지 활용(기숙사 설계 단계부터 반영)

### 4. 추진일정

과제	단기 (2016~17)	중기 (2018~21)	장기 (2022~25)
전공 통폐합, 조정 및 신설대학원 실태조사			
대학원 신설, 운영			
학부/대학원/연구소의 유기적 결합 강화			
(야간, 주말, 정원 등) 규제완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 <싱크탱크 기능 활성화 방안> 보고서

### 1. 현황 및 문제점

- 학과 혹은 전공 중심으로 29개 연구소 운영
- 프로젝트 베이스 43개 연구센터, 연구산학협력단 산하 설치
- 연구소 지원비는 저널 발간에 그치고 있음
- 대형/브랜드화된 연구소 사실상 부재

### 2. 개선방향

- 외대 고유의 학문적 업적 축적 및 확산
- 학과중심이 아닌 외대 브랜드 가치 중심 연구소로 체제 개편
- 연구소 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및 역량의 집중화
- 수익 및 재정확충과 연계한 연구소 운영
- 대학원-연구소 연계 강화,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여

### 3. 실행방안

- 유사 성격 연구소 일원화, 국책/민간 연구소와 협업 강화
-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로 차별화
- 시대 이슈 (기후변화/개발경험공유/인공지능/도시화 등) 연구소 신설, 지역학/어학/공학 등 연계 융복합적 연구 수행  
 예) 비교개발정책연구 / 글로벌통상·안보연구 / 아시아메트로폴리탄연구 / AI/Robo Language 글로벌언어연구 / 글로벌기후변화연구
- 저널 출판은 지식출판원으로 이관(업무부담 경감 및 지재권 관리 강화)

### 4. 추진일정

과제	단기 (2016-17)	중기 (2018-21)	장기 (2022-25)
연구 발표 공간의 브랜드화			
연구소 특성화, 차별화 방안 확정			
융복합 연구 강화, 연구소 신설			
교내 연구소 평가제도 도입, 집중화 결정			
대형 연구소 발굴 육성(외대 브랜드화) 국책/민간연구소와의 협업 강화			
대학원-연구소 연계 체제 확립			

## <스마트 해외캠퍼스 운영 방안> 보고서

### 1. 현황 및 문제점

- 첨단화되는 정보화 시대 교수/학습환경 변화 활용 필요
- 이동성/활용성 강화된 교육 콘텐츠 확충 필요

### 2. 개선방향

-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교육 모델 구축
- 학교 위상과 교육역량 제고 및 수익 창출
- 국내외 네트워킹 활용 해외 교육 수요 충족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3. 실행방안(기본구상)

- 추진주체: 외대 독자적 혹은 컨소시엄 형성  
예) 외대/사이버외대 + 해외대학
- ICT 활용 글로벌 플랫폼 활용  
- 코세라(coursera) 2천여만명, 에덱스(edx) 6백여만명 수강
- 학제: 학위과정(2+2 혹은 1+3) 및 비학위과정
- 교육방법: 온라인 쌍방향 교육(필요시 오프라인 융합)
- 콘텐츠 개발  
-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경제발전경험 콘텐츠 우선 개발  
- 국제회계사, 재무관리사, CFA 등 국제전문자격증 시험 온라인 교육 등

### 4. 추진일정

과제	단기 (2016~17)	중기 (2018~21)	장기 (2022~25)
해외 거점 대학(기관) 지정, MOU 체결			
콘텐츠 개발			
비학위과정 및 학위과정 개설 운영			
사이버외대, 해외캠퍼스(#3) 전용 검토			
해외 우수 온라인 대학과 학점교환 및 공동학위 과정 운영			

## 참고자료

- Alvin Toffler, Revolutionary Wealth, 2006
-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2013
- Don Tapscott, Prosperity in the Digital Age. World Knowledge Forum, 2015
- Harry S. Dent, Jr. The Demographic Cliff, 2015
- Otman Basir, IoT and Connected Lifestyles, 2015
- WEF,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 곽덕훈, 지식창조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2016
- 동아일보 2015. 7. 21
- 중앙일보 2015. 12. 15
- 연합뉴스 2015. 12. 16
- 머니투데이 2016. 3. 16

Come to **HUFS** Meet the **Future!**

외대를 만나면 **미래가** 보인다!



## 【목차】

### 연구보고(2016-001) <영어교육 강화 방안>

연구요약 .....	1
1. 들어가는 말 .....	2
2. 현황 및 인식 .....	2
2.1. 영어교육 현황 .....	3
2.2.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 .....	5
3. 영어교과과정 개편(2016-2017년) .....	5
3.1. 영어교육의 제도적 강화 방안 .....	5
3.2. 학년별 교과과정 .....	6
4. 신 영어교과과정 적용(2018-2021년) .....	6
4.1. 전공영어강의 .....	6
4.2. 영어전용기숙사 운영 .....	8
5. 영어공용캠퍼스로의 전환(2022년 이후) .....	9
5.1. 영어공용캠퍼스의 개념 .....	9
5.2. 영어공용캠퍼스에 따른 학사 개편 .....	10
5.3. 영어공용캠퍼스의 성공 요인 .....	10
5.4. 국내 영어공용캠퍼스 운영대학 .....	12
6. 제언 .....	13

## 【목차】

### 연구보고(2016-002) 〈대학원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요약 .....	18
1. 들어가는 말 .....	19
2.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20
3. 제도 개선 및 특성화 방안 .....	24
3.1. 제도 개선 .....	24
3.2. 각 대학원 차원의 특성화 방안 .....	25
3.3. 실행방안(요약) 및 추진일정 .....	26
4. 신설 대학원 제안 .....	27
5. 맺음 말 .....	28
<별첨자료> .....	30

## 【목차】

연구보고(2016-003)  
<싱크탱크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요약 .....	39
1. 들어가는 말 .....	40
2. 외대 연구소 현황 .....	40
3. 타 대학교 연구소 현황 .....	42
4. 외국연구소 사례 .....	43
5. 외대 연구소 특성화 방안 .....	44
6. 나오기 .....	48



## 【목차】

연구보고(2016-004)  
〈스마트 해외캠퍼스 운영 방안〉

연구요약 .....	51
1. 들어가는 말 .....	52
2. 타 대학 현황 .....	53
3. 한국외대 해외 스마트캠퍼스의 기본취지와 방향 .....	57
4. 기본구상 .....	57
5. 잠재적 해외학습 대상자 .....	58
6. 콘텐츠 개발 .....	59
7. 나오기 .....	60

연구보고(2016-001)

# 영어 교육 강화 방안

책임자 : 김 원 호

집필자 : 최 호 성

## 【목차】

### 연구보고(2016-001) <영어교육 강화 방안>

연구요약 .....	1
1. 들어가는 말 .....	2
2. 현황 및 인식 .....	2
2.1. 영어교육 현황 .....	3
2.2.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 .....	5
3. 영어교과과정 개편(2016-2017년) .....	5
3.1. 영어교육의 제도적 강화 방안 .....	5
3.2. 학년별 교과과정 .....	6
4. 신 영어교과과정 적용(2018-2021년) .....	6
4.1. 전공영어강의 .....	6
4.2. 영어전용기숙사 운영 .....	8
5. 영어공용캠퍼스로의 전환(2022년 이후) .....	9
5.1. 영어공용캠퍼스의 개념 .....	9
5.2. 영어공용캠퍼스에 따른 학사 개편 .....	10
5.3. 영어공용캠퍼스의 성공 요인 .....	10
5.4. 국내 영어공용캠퍼스 운영대학 .....	12
6. 제언 .....	13

## 【연구요약】

### <영어교육 강화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현행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영어는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다. 1학년 1·2학기에 수강하는 교양외국어는 기초교양의 한 영역으로 중위 및 하위 그룹 학생들에게는 필수이나, 상위 그룹 학생들에게는 선택과목이다. 자유(선택)교양에 속하는 실용외국어는 핵심교양의 전 영역과 기타 자유(선택)교양과목과의 경쟁 속에서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 영어가 1·2학년 4개 학기 8학점이 필수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중이 매우 낮아진 것이다. 현행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공을 불문하고 외대생은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에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교내·외의 인식 및 외대의 정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교육 관련 로드맵은 3단계(단기·중기·장기)로 구성하였다. 우선 1단계(2016-2017년)는 영어교과과정을 개편하는 시기이다. 영어의 비중을 높여서 영어가 전체 학점의 1/4-1/3이 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1·2학년은 어학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3·4학년은 전공의 일부를 영어로 수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졸업인증제를 강화하고, 학기별 성취 기준을 정하고 성취도 평가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2단계(2018-2021년)는 신 영어교과과정을 적용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3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진정한 영어공용캠퍼스를 위하여 나아가는 시기이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학 및 학과별로 교과과정을 조정하고 영어강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한다. 3단계(2022년 이후)는 영어공용캠퍼스 구축기이다. 영어가 외대의 언어가 되어, 교수 및 학습활동 그리고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영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연구와 강의에 있어서 영미권 대학 및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각 단계별로 제시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 밖에 영어전용기숙사 운영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 및 재단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영어는 이미 일반적인 세계어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는 다수의 외대 졸업생이 배출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외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들어가는 말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판은 지난 20-30년 동안 점차 약화되어 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외국어교육기관으로서의 예전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에 대한 한계, 외국어가 학문이 아닌 도구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졸업생에 대한 평판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외대 졸업생에게 기대하는 바는 당연히 훌륭한 외국어 실력이었다. 특히, 영어 실력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었다. 바꿔 말하면, 사회에서는 외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전공을 불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은 갖추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외대 졸업생의 영어 수준은 어떠한가? 과연 사회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매우 자명하다. 상당수의 외대 졸업생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내부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학의 영어교육 교과과정 때문이다. 본고는 우선 우리 대학의 영어교육 현황 및 영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세 단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세 단계 발전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중기적으로는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영어공용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 2. 현황 및 인식

영어는 오늘날 명실상부한 국제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제 사회로의 적극적 진출과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 영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많은 국가에서 영어를 모국어 외에 추가로 습득하고 배우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영어를 영미권의 언어가 아닌 세계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외대 내에서 영어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대의 영어교육 현황과 영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드러난다.

## 2.1. 영어교육 현황

### 1) 신입생 진단평가

- ▷ 매년 2월 신입생영어능력진단평가(모의FLEX)를 실시하여 IFLEP(Individualiz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gram; 맞춤형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급 부여
- ▷ 상위 20%(1·2·3등급)는 진리반, 중위 60%(4등급)는 평화반, 하위 20%(5등급)는 창조반으로 배정하여 수준별 수업 실시
- ▷ 상위 20% 가운데 1·2등급 학생은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수강할 수 있음(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1·2등급 학생의 약 40%가 기타 외국어를 선택하고 있음).

### 2) 교양영어 강좌 개설

교양영어는 기초교양의 교양외국어1 및 교양외국어2 영역과 자유(선택)교양의 실용외국어 영역에 개설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교양대학 학점이수 체계

구분	영역 및 과목명	학년	학점	이수규정
기초 교양	○ 미네르바 인문강좌1: 인간과 문명	1학년	3학점(3시간)	총14학점 필수 (졸업필수)
	○ 미네르바 인문강좌2: 글로벌 소통과 배려		3학점(3시간)	
	○ 교양외국어1		3학점(3시간)	
	○ 교양외국어2		3학점(3시간)	
	○ 신입생세미나		1학점(1시간)	
	○ HUFSS Career Design:진로설정과 경력개발	2학년	1학점(2시간)	
핵심 교양	○ 언어와 문학 ○ 문화와 예술 ○ 역사와 철학 ○ 국가와 사회 ○ 과학과 기술	전학년	과목당 2학점(2시간)	5개 영역 중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수 필수 (졸업필수) 총12학점 이수
자유 (선택) 교양	○ 핵심교양 영역 중 선택 ○ 건강과 레포츠 ○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 실용외국어(선택) ○ 특별교양	전학년		좌측 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 하여 최소 6학 점 이수
	○ 진로설계세미나 ○ 진로개발세미나1,2	1-2 2학년		
<b>전체 교양 학점</b>				<b>총 32학점</b>

### 3) 교양외국어

- ▷ 교양외국어는 1학년 1, 2학기에 편성되어 있음.
- ▷ 기초교양 과목으로서 교양외국어는 필수과목이나, 영어는 교양외국어 중 하나로 선택과목으로 보아야 함.  
(진단평가에서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영어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지만, 1·2등급 학생들은 기타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음.)
- ▷ 서울캠퍼스 현황: 2016-1학기 현재, 교양외국어영역에서 영어를 비롯한 12개의 외국어과정 운영  
총 74개 강좌 중 48개(63%)가 영어강좌임.
- ▷ 글로벌캠퍼스 현황: 2016-1학기 현재, 교양외국어영역에서 영어를 비롯한 13개의 외국어과정 운영  
총 75개 강좌 중 60개(80%)가 영어강좌임.

### 4) 실용외국어

- ▷ 자유(선택)교양으로 편성된 실용외국어는 핵심교양 전 교과목 및 자유(선택)교양 전 교과목과 경쟁 관계에 있고, 실용외국어를 전혀 수강하지 않아도 됨([표 1] 교양대학 학점 이수 체계 참조).
- ▷ 서울캠퍼스 현황: 2016-1학기 현재, 핵심교양 5개영역 166개 강좌, 자유(선택)교양 101개 강좌 등 총 267개 강좌 중 12개 강좌가 실용외국어 강좌이고, 이 중 영어강좌는 7개임.  
\*진로설계세미나 및 진로개발세미나1,2를 제외한 수치임.
- ▷ 글로벌캠퍼스 현황: 2016-1학기 현재, 핵심교양 5개영역 188개 강좌, 자유(선택)교양 89개 강좌 등 총 277개 강좌 중 30개 강좌가 실용외국어 강좌이고, 이 중 영어강좌는 21개임.  
\*진로설계세미나 및 진로개발세미나1,2를 제외한 수치임.

## 2.2.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

- ▷ 외대 내에서 영어는 국제어 또는 세계어가 아닌 45개 전공언어 가운데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음.
- ▷ 영어는 필수가 아닌 기초교양의 교양외국어영역과 자유(선택)교양의 실용외국어영역으로 편제되어 선택 교과임.
- ▷ 영어 관련 교과과정의 확대가 타 언어 교과과정의 위축으로 인식될 수 있음.
- ▷ 영어는 1990년대 후반 '실용영어' 도입 시 1, 2학년, 총 4개 학기 동안 8학점 필수과목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음.

## 3. 영어교과과정 개편(2016-2017년)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대학에서 영어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 과목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 관련 학과(부)를 제외한 상당수 학과의 학생들은 영어를 전혀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한편 진단평가 1·2등급 학생들은 기타 외국어만 수강할 수 있고, 3-5등급 학생들은 1학년 2개 학기 동안 교양영어를 4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현행 교과과정이 졸업생들의 영어 실력 부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3.1 영어교육의 제도적 강화

- ▷ 전체 졸업이수학점에 전공+영어의 개념 도입
- ▷ 졸업 이수 학점의 1/4-1/3에 해당하는 학점(34-45/134학점)을 영어에 할애하는 영어교육 시스템을 마련
- ▷ 매년(또는 매학기) 영어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전공 진입 또는 학년(또는 학기) 진급 불허



- ▷ 영역별 성취기준 설정 및 영어졸업인증제 강화 → 학기별로 영역별(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개 영역) 성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절대평가에 근거한 졸업 요건 강화
- ▷ 졸업인증 대체 프로그램의 개선 또는 폐지 → 대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졸업인증 점수에 미달해도 구제해 주는 현행 제도를 영어교육강화 취지에 맞게 개선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3.2. 학년별 교과과정

- ▷ 1, 2학년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이 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일반영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전공 관련 특수목적영어(예: English for accounting, English for banking and finance 등) 교과과정을 제공
- ▷ 3, 4학년은 고급 발표력/소통력에 제고에 초점을 두고 내용중심의 교과과정 제공
- ▷ 예시 (34학점 기준)
  - 1학년(영어 10학점, 5학점\*2개 학기): 일반영어 및 특수목적영어 이수
  - 2학년(영어 10학점, 5학점\*2개 학기): 일반영어 및 특수목적영어 이수
  - 3학년(영어 8학점, 4학점\*2개 학기): 전공과정 영어강의 이수
  - 4학년(영어 6학점, 3학점\*2개 학기): 전공과정 영어강의 이수

## 4. 신 영어교과과정 적용(2018-2021년)

신 영어교과과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영어로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기보다는 영어를 언어로 배우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1·2학년은 전적으로 언어 습득에 매진하고, 3·4학년에 진입하여 일부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영어공용캠퍼스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각 단과대학 및 학과는 이 기간 동안 체제를 정비하여 영어공용캠퍼스에 대비하도록 한다.

### 4.1. 전공영어강의

현재의 영어강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매우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그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의해 영어강의가 급하게 진행되었고, 따라서 준비 과정과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 교수자와 학습자의 영어능력이 영어강의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다른 대학의 실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교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데, 영어강의 비율이 87%에 달한다고 하나 실질적 영어강의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일부 교수의 경우 영어강의를 기피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강의 변경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다. 영어강의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글로벌 정신함양과 학문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과별 단계적 확대

- ▷ 1단계: 영어관련 학과 및 LT학부, LD학부, 국제학부 영어강의 확대
  - ▷ 2단계: 사회과학계열 및 이공계 영어강의 확대
  - ▷ 3단계: 영어를 제외한 어문학계열 및 인문학계열 영어강의 확대(영어강의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과목을 선별하고 영어강의능력을 갖춘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함.)
- \* 각 학과나 단과대학에서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강의 과목과 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음.

#### 2) 교수자 측면

- ▷ 영어강의의 성패는 학습자보다는 교수자에게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함.  
(어려운 전공 내용을 쉬운 영어로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 영어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원 확보 ← 임용 심사 과정에서 영어수업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함(외부 기관 의뢰 또는 학교 자체 능력검증 시스템 도입).

- ▷ 임용 후 실질적 영어수업 여부 확인(학생 평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 언어뿐만 아니라 이론과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원어민교수를 확보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및 권한 부여 → 학과장 등의 보직을 주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영어강의 교수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어 강의 교수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함.
- ▷ 기존 교수의 경우 영어강의는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영어강의 시행 여부 자체를 선택하게 하고 영어강의를 할 경우도 과목이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3) 학습자 측면

- ▷ 완전한 영어공용캠퍼스로 가기 전 과도기에는 학습자의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전공의 경우 보충강의를 하도록 함.
- ▷ 보충강의는 전공 강의 후에 한국어로 실시함. → 한국어로 해당 내용을 복습하게 되고, 강의는 해당 전공의 대학원생을 TA로 활용함.
- ▷ 강의뿐만 아니라 보고서, 시험, 토론 및 발표 등 수업 전체를 영어로 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4.2. 영어전용기숙사 운영

- ▷ 1학년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 → 기숙사에서 영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몰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 ▷ 다양한 언어권의 유학생 유치로 영어를 기숙사내 공용어로 함.  
(가능하면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룸메이트로 하고, 기타 기숙교육 프로그램도 영어로 진행함.)

▷ 기숙사 현황

서울캠퍼스: 국제학사(662명), 외부학생 기숙사(180명)

글로벌캠퍼스: 흡스돔(1,932명), 구 기숙사 리모델링으로 2,332명까지 수용 가능

▷ 기숙사 추가 건립

서울캠퍼스는 공간적 제약으로 기숙사 추가 건립이 불가능하므로, 글로벌캠퍼스에 1,200명 규모의 기숙사 신축이 필요함 → 양 캠퍼스 1학년 전원 수용 가능 대안으로 송도캠퍼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 기존 기숙사는 2·3·4학년과 유학생을 수용하고, 송도캠퍼스 부지에 1학년 전원을 수용하여 1년 동안 교육함.

▷ 기대효과

서울캠퍼스의 공간 활용도 향상

양 캠퍼스의 공간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캠퍼스가 확장되는 효과를 거둠.

▷ 현재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제언

기숙사 신축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현재 기숙사(서울 662명, 글로벌 1,932명)내 영어교육을 강화 → 영어전용기숙사로 전환하고, 기숙사내 영어교육 프로그램 실시

## 5. 영어공용캠퍼스로의 전환 (2022년 이후)

외대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강화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어공용캠퍼스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공용캠퍼스는 '외대'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우리 대학의 비전 및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을 전문영역의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1. 영어공용캠퍼스의 개념

- ▷ 영어는 더 이상 영미권의 언어가 아닌 누구나 일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국제어 또는 세계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 언어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해외의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이 우리 대학에 와서 불편 없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 전 교과목의 100% 영어수업을 의미 →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강의함.
- ▷ 내용중심교수법 → 영어와 학문 내용을 동시에 학습하게 함.
- ▷ 전면적 영어 몰입교육 환경조성 → 모든 학교 업무에서 영어의 상용화(행정부서와 학사행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으로 영어사용을 확대)

### 5.2. 영어공용캠퍼스에 따른 학사 개편

- ▷ 어문계열은 영어를 추가하는 개념의 외국어학과로 개편하여 전공언어+영어 형태로 조정할 수 있음.(예: 영어-태국어과, 영어-베트남어과 등)
- ▷ 상경계열, 사회과학계열, 공학계열은 전공 특성에 맞는 영어(특수목적영어)를 교과과정에 반영
- ▷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내 기관(외국어교육센터, 외국어연수평가원, 국제사회교육원 등)에서 어학연수를 받도록 함. →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의 대학처럼 어학능력을 학교생활(수업, 행정 등)을 위한 기본능력으로 보고 어학수업(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교내 연수기관에서 관련 수업을 제공함.

### 5.3. 영어공용캠퍼스의 성공 요인

영어공용캠퍼스의 성공사례는 해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소재한 대학들로 이 지역은 영어가 제2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국가 통합을 위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영어에 대한 표준화 작업까지 논의하고 있다. 홍콩은 주민의 95%가 광둥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낮고 일반 홍콩 주민의 영어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고, 국제금융도시로서 영어사용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학들은 수업, 강의, 학사행정 등 모든 업무에서 영어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학 평가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유학생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들 대학의 사례를 통해 영어공용 캠퍼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선발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고려하므로 교수자가 학생의 영어능력에 대한 염려 없이 영어강의를 할 수 있음.
- ▷ 학생들은 입학 후에도 학교 자체 영어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함.
- ▷ 원어민이든 비원어민이든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고 학문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함.
- ▷ 외국인 교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과, 단과대 및 전체 학교 행정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
- ▷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과정과는 별개로 집중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학문적 영어(academic English)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 ▷ 영어능력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 해외 영어공용캠퍼스의 사례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 University of Hong Kong (UHK)
  -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 Temple University Japan (TUJ)

#### 5.4. 국내 영어공용캠퍼스 운영대학

현재 국내 대학 가운데 영어공용캠퍼스를 표방하고 있는 곳은 포스텍, 울산과기대, 고려대(세종), 한동대 등이다. 한동대는 개교 시부터 영어강의, 국제화를 강조한 교과과정을 운영해 왔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세계 50대 대학을 목표로 영어공용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텍은 2010년 3월부터 강의와 연구, 교수회의 등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영어공용캠퍼스에 나섰다. 울산과기대도 학부 및 대학원의 모든 강의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와 계명대는 학교 전체는 아니지만 영어전용 단과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포스텍: 2010년 영어공용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음.
  - 대학원부터 영어강의를 시작하여 학부로 확대하였음.
  - 교양수업과 전공기초 중심의 학부 1학년은 한국어로 강의
  - 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 영어로 논문작성
  - 학부생은 포스텍 영어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해야만 졸업가능
  - 전체교수회의도 영어로 진행
  - 대학규정, 행정문서, 게시물에 국문·영문 혼용
  -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영어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영어공용화가 가장 잘 정착된 학교로 외국인학생의 비중이 큼.
  
- ▷ 울산과기대: 개교 시(2009년)부터 100% 영어강의
  -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영어 강의를 듣도록 함.
  - 교원임용심사에서 영어능력은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임.
  - 외국인 전임교원 확대(전체 교수의 20%까지)
  - 기숙사에서 영어만 사용해야 함.
  - 매우 강력하게 영어공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 ▷ 한동대: 학부중심(교육중심)대학으로 설립 시부터 국제화를 표방함.
  - 학생들은 1학년부터 일정 비율의 영어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 고학년이 될수록 영어강의 비율이 증가함.
  - (강의의 형태는 100%영어, 50%영어, 한국어 강의로 분류됨.)

신임교수들의 영어강의 비중이 높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최초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영어강의를 운영하고 있음.

- ▷ 고려대(세종): 장기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1:1로 하는 완전한 ‘영어공용국제화 캠퍼스’ 추진  
전교생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기숙학교 모델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인 학생 2명과 외국인 학생 1명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방안)  
아직 영어공용화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름.

## 6.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공용캠퍼스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 학교의 비전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대학 전반의 영어교육정책 수립은 대학의 정체성 및 비전과 연계하여 장·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궁극적 지향점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 수립, 결정 그리고 시행 전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위원회에는 영어와 관련된 학과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영어교육과 양적팽창 위주의 영어강의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학문적 특성이 고려된 각 학과 또는 단과대학별 맞춤형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책 시행

이런 과정을 거쳐 수립된 영어교육정책(영어강의, 영어공용캠퍼스 포함)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어의 중요성과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내 구성원을 설득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대학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과 집행부의 몫이다. 또한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할지, 일부만 동의해도 시행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 ▷ 재단의 재정적 지원

정책 시행과정에서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강의는 한국어강의에 비해서 준비과정도 길고 몇 배의 노력이 들어야 하므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와 학생 지원으로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영어강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수를 지원해야 하고, 미국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Writing Tutorial Center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어전용강의실을 비롯한 기자재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기숙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 ▷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영어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대학 자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도화하여 영어강의의 질을 평가하며 피드백하고 개선점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제는 영어강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학생 선발 및 교원 임용제도 개선

영어강의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영어강의능력이 뛰어난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영어에 가중치를 두고 실제 언어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영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들은 언어의 한계로 인한 상실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교원 임용의 경우, 교내 영어능력검증 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이론과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원어민 교수 임용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 학생 및 교·강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영어강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 및 교·강사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전에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업 후에는 한국어로 보충 수업을 하면 보다 충실한 강의가 될 것이다. 교·강사를 위해서는 영어강의에 대

한 적절한 교수법을 안내하고, 학과별 혹은 전공별로 영어강의 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강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연구보고(2016-002)

# 대학원 운영 개선 방안

- 외대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

책임자 : 김 원 호

집필자 : 박 치 완

## 【목차】

### 연구보고(2016-002) <대학원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요약 .....	18
1. 들어가는 말 .....	19
2.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20
3. 제도 개선 및 특성화 방안 .....	24
3.1. 제도 개선 .....	24
3.2. 각 대학원 차원의 특성화 방안 .....	25
3.3. 실행방안(요약) 및 추진일정 .....	26
4. 신설 대학원 제안 .....	27
5. 맺음말 .....	28
<별첨자료> .....	30

## 【연구요약】

### <대학원 운영 개선 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정원 미충원 - 연간 약 28억원 규모 재정 손실
- 산업구조 변화/ 사회적 수요/ 학생 요구 반영 필요
- 본교출신 장학제도 개선 필요
- 대학원생 전용 연구공간 확충 및 일부 대형 학과 사무공간 마련 시급

#### 2. 개선 방향 및 실행 방안

##### 가. 개선 방향

- 사회적 수요 부합 전문/특수 대학원 신설(2-3개)
- 입학정원 미달 학과/전공 통폐합
- 내국인 학생 장학금 인상 및 외국인 학생 외부 장학금 유치
- 대학원 신설을 위한 교사(校舍) 마련

##### 나. 실행방안

-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특수 대학원 신설  
예) 글로벌문화산업대학원/ 글로벌한국학대학원/ 디지털출판대학원
- 입학정원 미달 학과/전공 통폐합  
예) 충원율 저조 학과 통폐합/ 학문 기초 공통 교육과정 운영
- 일반대학원 논문지원장학금 전 대학원으로 확대 -> 연구력 제고
- 학부 지급율 동일 수준으로 장학금 확대
- 신설 대학원을 위해 구 우리은행 건물 신축 시 공간 배정(설계 단계부터)

#### 3. 추진 일정

- 단기(2016~17): 학과 통폐합 및 신설 대학원 수요조사
- 중기(2018~21): 대학원 신설 및 운영
- 장기(2022~25): 학부/대학원/연구소의 유기적 결합 강화

## 1. 들어가는 말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을 비롯해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과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 등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학원에서는 원장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힘 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 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 간 유사 및 중복학과를 통폐합해야 하며(특히 일반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 사회적 수요도 충족하고 경쟁력도 기대되는 신규 대학원(글로벌문화산업대학원, 글로벌한국학대학원, 디지털출판대학원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원위원회(총장이 위원장이며 각 대학원 원장이 위원으로 있음)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 각 대학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충원율이 저조한 대학원부터 정원조정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

외대 대학원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은 대학원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치행정언론대학원과 경영대학원(근년에는 국제지역대학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의 미충원율이 외대 대학원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한다. 물론 충원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 통번역대학원, 일반대학원, TESOL대학원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만족해서 된다는 뜻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 취업시장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 사회적 수요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해 각 대학원을 현재 상태보다 더욱 특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대 대학원은 이미 그 명칭에서부터 사회적 변화 요구에 적극 대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변화를 두려워하며 고답적인 운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미충원율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재정 손실 또한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임 교수 중심의 각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와 8명의 대학원 원장이 구성원인 대학원위원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번 미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전국 주요 대학의 대학원을 조사해본 결과 20-30명 정원의 특화된 대학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대도 과감한 결정을 통해 보다 특화된 대학원의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각 대학원 별로 기존 학과 중 선도학과를 만들어 외대 대학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외대 고유의 브랜드 가치도 재창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대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학생지원제도(장학금, 기숙사) 강화에 대해서도 학교 집행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부 운영에 대한 대

학과 재단 측의 관심에 비하면 대학원 운영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열악한 것이 외대 대학원이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변화를 모색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외대 대학원만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대학원 경영의 후진성에 빠져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외대 대학원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는 내부적 혁신과 개혁 없이는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본 제안서는 외대 대학원 운영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의 개선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아래에서 i) 현황 분석 및 문제점, ii) 제도 개선 및 특성화 방안, iii) 신설 대학원 제안 순으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 2.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외대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 3년 간 약 83% 수준이며 이는 미충원율이 17%임을 의미한다. ([표 1] 참조)

▷ 외대 대학원 재학생 등록률은 지난 3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0%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등록율이 20%라는 의미이며 이를 등록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6억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및 <별첨자료 4> 참조)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의 정원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규 대학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최근 신설한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일반대학원의 ‘외국어로서한국어번역전공’ 등의 학과(전공) 신설과 같은 임시방편책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신설 대학원이라 생각된다.

[표 1] 최근 3년간 외대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구 분	정원	2013학년도		정원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등록인원	충원율		등록인원	충원율	등록인원	충원율
일반대학원	420	411	97.86	495	457	92.32	453	91.52
통번역대학원	160	173	108.13	160	172	107.50	175	109.38
국제지역대학원	165	207	125.45	165	187	113.33	145	87.88
법학전문대학원	60	53	88.33	60	51	85.00	54	90.00
경영대학원	215	181	84.19	215	155	72.09	168	78.14
교육대학원	210	188	89.52	210	180	85.71	211	100.48
정치행정대학원	77	29	37.66	77	16	20.78	25	32.47
TESOL대학원	45	27	60.00	45	55	122.22	58	128.89
합 계	1352	1269	93.86 (82.19)	1427	1273	89.21 (81.98)	1289	90.33 (85.00)

- \* 2013~2015년 평균 충원율은 83.05%이며, 100%가 넘는 경우를 100%로 환산하면 약 80% 정도임.
- \* 최근 들어 충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국제지역대학원의 경우도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해 보임.

[표 2] 최근 3개학기(2015-1학기~2016-2학기) 대학원 등록현황

구 분		2015학년도 1학기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등록현황		
		편제 정원	등록 인원	등록률	편제 정원	등록 인원	등록률	편제 정원	등록 인원	등록률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660	537	81%	660	540	82%	660	547	83%
	통번역대학원	300	322	107%	300	318	106%	300	319	106%
	국제지역대학원	260	214	82%	260	222	85%	260	189	73%
	법학전문대학원	150	151	101%	150	147	98%	150	156	104%
	교육대학원	525	461	88%	525	422	80%	525	445	85%
	경영대학원	430	290	67%	430	281	65%	414	276	67%
	정치행정언론대학원	193	58	30%	193	39	20%	175	31	18%
	TESOL대학원	90	84	93%	90	70	78%	120	84	70%
	계	2,608	2,117	81%	2,608	2,039	78%	2,604	2,047	79%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330	265	80%	330	264	80%	330	276	84%
	통번역대학원	20	19	95%	20	19	95%	20	18	90%
	국제지역대학원	70	65	93%	70	71	101%	70	70	100%
	법학전문대학원	20	3	15%	20	4	20%	20	4	20%
	계	440	352	80%	440	358	81%	440	368	84%
총계(석사+박사)		3,048	2,469	81%	3,048	2,397	79%	3,044	2,415	79%

▷ 신규 대학원의 필요성은 20-3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주요 대학의 대학원을 참고한다. 특수 대학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의 경우도 2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립대 디자인전문대학원 등). ([표 3] 참조)



[표 3] 정원 30명 내외 규모의 전문/특수 대학원 개설 현황

대학명	구분	대학원명	정원
서울대	전문대학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30
고려대	전문대학원	그린스쿨대학원	30
성균관대	전문대학원	수자원대학원	30
	특수대학원	국가전략대학원	25
	특수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30
	특수대학원	생활과학대학원	24
시립대	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20
	특수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39
한양대	특수대학원	공학기술대학원	20
	특수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30
경희대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26
공주대	특수대학원	테크노융합대학원	29
	특수대학원	문화유산대학원	26
경상대	특수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36
영남대	특수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23
	특수대학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

▷ 본 연구를 통해 대학원의 숫자가 곧 대학의 경쟁력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으며,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사회수요맞춤형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 연세대(18개 대학원), 고려대(15개 대학원), 성균관대(23개 대학원), 한양대(20개 대학원), 서강대(12개 대학원), 중앙대(16개 대학원), 경희대(16개 대학원)

▷ 대학원의 세분화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BK사업의 수주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CORE사업(특히 기초심화모델 -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이 중요 평가 지표임)에서도 대학원의 경쟁력이 필수사항이다. ([표 4] 및 [표 5] 참조)

[표 4] BK21플러스 선정결과(2013년)

대학명	사업단			사업팀	합계	사업비 지원액 (백만원)
	과학 기술	인문 사회	융복합			
서울대학교	16	4	2	13	35	38,534
고려대학교	13	8	3	5	29	22,300
연세대학교	11	7		5	23	21,111
성균관대학교	9	4	3	5	21	15,271
경희대학교	3	1	2	14	20	7,119
한국과학기술원	8	1	2	2	13	6,531
한양대학교	2			8	10	5,308
이화여자대학교	2	1		10	13	3,810
<b>한국외국어대학교</b>		<b>1</b>			<b>1</b>	<b>190</b>

[표 5] 2016년 주요대학 BK21플러스 사업 선정결과

대학명	사업단 수	사업팀 수	합계
서울대학교	28	12	40
성균관대학교	21	10	31
연세대학교	20	8	28
고려대학교	21	6	27
경희대학교	7	8	15
이화여자대학교	6	9	15
한양대학교	3	12	15
중앙대학교	2	12	14
건국대학교	3	7	10
서강대학교	0	10	10
국민대학교	3	4	7

❖ 한국의국어대학교 2개 사업단 선정

▷ 따라서 외대에서는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의 충원율이 낮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로 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경우는 타 대학과 비교할 때 전공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학과별로 세분화된 전공이 충원을 저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6] 참조)

▷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비해 일반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등에 외국인학생만을 위한 학과 신설도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됨.

[표 6] 서울소재 9개 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현황 비교

학교명	석사정원	박사정원	2015년신입생 충원율	외국인 재적학생	개설학과(전공)
서울대 국제대학원	75	5	193.80%	167	4개전공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89	3	184.80%	194	4개전공
고려대 국제대학원	84	7	150.50%	131	2개학과(5개전공)
서강대 국제대학원	50	5	150.90%	130	4개전공
중앙대 국제대학원	52	0	117.30%	36	2개학과(3개전공)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74	20	104.20%	79	2개학과(6개전공)
경희대 국제대학원	40	15	210.90%	108	4개학과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45	5	108.00%	65	6개학과
한국의대 국제지역대학원	130	31(4)	87.90%	112	11개학과(석사과정기준)

### 3. 제도 개선 및 특성화 방안

### 3.1. 제도 개선

외대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각 대학원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학과/전공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일반대학원: 입학충원율이 저조한 학과통폐합, 어학+문학을 아우르는 기초 공통과목 개발/ 국제지역대학원: 세분화된 전공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새로운 개념의 학위과정 및 동일전공(문학, 어학의 기초공통과목 개발을 통해)의 공통이수과목 개발 및 제도 혁신이 요구됨
- 2) 대학원들 간의 정원 조정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전문 대학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경영대학원: 주야간 통합이 가능해보임) -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도 외국인학생 유치 가능한 학과 신설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3) 사회적 수요맞춤형 대학원으로 현재 우리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경차이나 과정을 대학원으로 승격시키고, KOTRA에서 시행 중인 '코트라 아카데미'도 외대와 연계해 학위 과정으로 승격시켜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다.
- 4) 각 대학원의 브랜드화를 위해 유력·저명인사를 초빙교수로 적극 영입할 필요가 있음
- 5)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현재처럼 학과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각 대학 차원에서 전문성/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학과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6) 통변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과 같은 전문대학원에서 대학원생 중심의 정부지원책인 BK21+ 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지 진단이 필요함 - 연구력 향상을 위한 장학제도 마련이 시급
- 7) 지방 국립대 및 서울 주요 대학에 비해 국제화 관련 제도적 지원이 열악한 상황임(경북대의 경우 인문학술원에 연간 1억 원을 투자해 국제학술행사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학교의 지원과 대학원생을 위한 외부 장학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8) 외국인 유학생의 서비스 창구 마련 및 지도 교수제 도입 등 외국인학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9) 세계 유수의 대학들처럼 졸업논문을 영어(또는 해당 전공지역 언어)로 쓰도록 권장하여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대학원의 졸업생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

10) 국제지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의 학과사무실과 독립된 학과별 연구 공간의 마련 이 시급/ 일반대학원의 경우도 재학생 정원이 50명 이상 100명에 이른 경우, 교 무처 발령의 대학원생 조교를 추가로 발령해 학과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교출신 장학생의 근무 연한 제한(1년)으로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대형 학과의 경우에 한함.

### 3.2. 각 대학원 차원의 특성화 방안 마련

외대 대학원 특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원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원은 정원을 조정하여(감축하여) 신설 대학원 을 위한 정원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외대의 특성을 살려 보다 특성화 를 꾀해야 함

- 일반대학원: 학과통폐합(일반대학원 내의 유사학과 통합, 국제지역대학원과 중 복학과 통폐합)

- 국제지역대학원: 세분화된 전공을 보다 큰 단위로 조정

- 통번역대학원: 금융업, 제조업 등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통역 분야의 실력을 높 이는 교육시스템 강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인구대국의 특수어에 관해서는 정부지원 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통번역사 양성이 시급

- 경영대학원: 주간 MBA 과정(경영학과)과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의 통폐합

\* 일반대학원의 경우 강의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어학+문학을 아우르는 기초공 통과목 개발 시급 - 1개 학과의 3명의 재학생을 위해 매학기 9과목을 2년 동안 개설 해야 하는 폐단이 있음

▷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통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TESOL대학원, 국제 지역대학원 등은 외대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논의가 필요함.

i) 외부 장학 기금 확충, ii) 연구지원 장학제도 신설 등이 요구됨

▷ 대학원 신설을 위해서는 8개 대학원이 참여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단력 있 는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校舍)마련도 필수적이라 판단됨 - 이문동 구 우

리은행 부지에 학교 건물 신축 시 1~2층 정도를 신설 대학원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반영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 해외대학 연수자 단기 프로그램 마련, ii) 외국 우수 대학의 온라인 강의 수강 학점 인정, iii) 해외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대학원 <3+1 프로그램>, <2+2 공동학위제도> 확대, iv) 졸업 논문을 외국어로 쓰도록 권장, v)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등의 논문 게재 장학 제도 확대

▷ 특성화는 먼저 각 대학원 차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i) 저명·유력인사를 초빙 교수제 도입, ii) 각 대학원의 운영위원에서 관리하는 학과 신설(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학부의 학과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 외대만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가 있는 학과를 개발하고 이를 대학 측에서 적극/집중 지원

### 3.3. 실행방안(요약) 및 추진일정

- ▷ 사회적 수요 부합 전문/특수 대학원 신설  
예) 글로벌문화산업대학원/ 글로벌한국학대학원/ 디지털출판대학원
- ▷ 입학정원 미달 학과/전공 통폐합  
예) 충원을 저조 학과 통폐합/학문 기초 공통 교육과정 운영
- ▷ 일반대학원 논문 지원 장학금 전 대학원으로 확대 -> 연구력 제고
- ▷ 학부 지급을 동일 수준으로 대학원 장학금 확대

<추진일정표>

과제	단기 (2016~17)	중기 (2018~21)	장기 (2022~25)
전공 통폐합, 조정 및 신설대학원 실태조사			
대학원 신설, 운영			
학부/대학원/연구소의 유기적 결합 강화			
(야간, 주말, 정원 등) 규제완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 4. 신설 대학원 제안

외대의 고유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신설 대학원으로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미래위원회 교내·교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수차의 미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재구성한 것이다.<sup>1)</sup>

- 1) **글로벌한국학대학원**: 한류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한국학을 강의하는 대학원 - 참고로 ‘중국학생 특화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동 보고서 초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음.
- 2) **글로벌문화산업대학원**: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문화융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문화산업 분야는 21세기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외대가 이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한국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학원
- 3) **디지털출판대학원**: 웹소설, 웹툰 등 온라인을 활용한 출판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초중고의 디지털 교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발표된 지 오래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원
- 4) **노년학(Gerontology)대학원**: 노년층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문화복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수용/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시니어힐링대학원
- 5) **디지털융합인문대학원**: 4차산업혁명, 신기술트렌드를 선도하고 첨단기술과 인문학의 연계를 모색하는 대학원

---

1) 참고로 국제지역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의 해당 학과와 별도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아프리카대학원**, **중남미대학원**에 대한 제안도 있었음/ **국내 우수 기업의 이름을 딴 대학원**: 삼성대학원, 현대차대학원, SK대학원, 하나금융대학원과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사내 석사 인증대학을 우리대학이 운영하고, 이에 대해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도 제안되었음/ 기존 대학원을 융합형대학원으로 재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음(ex. 일반어문대학원, 아세아대학원, 글로벌지역대학원, 디지털문화콘텐츠대학원 등 )

- 6) **글로벌협력대학원**: 세계의 로컬언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권, 인류평화, 지구 시민 등에 관한 연구를 특화/선도하며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 7) **MOOC대학원**: MOOC에 개설된 강좌를 기반으로 전공 영역(가칭 IoT 융합전공, 스마트헬스&힐링 전공 등)을 개설하고, 이에 적합한 강좌들을 글로벌 MOOC에서 선정한 후 국내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역할하여 운영되는 대학원
- 8) **아세안대학원**: 아시아경제공동체 출범, 1억 중산층의 급증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아세안 문화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관련 특수어를 가르치고 있는 외대가 아시아의 문화+언어+정치+경제를 아우르는 특화된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대학원
- <매일경제>가 추진하는 아세안포럼출범과 원아시아 연구소 설립에 외대가 협력하여 연구부분을 맡아 정부나 기업의 아시아 관련 용역 수행
  - 현 국제지역대학원 내 관련 학과를 분리·독립시키기에 앞서 테스트 시뮬레이션 필요
- 9) **AR/VR 대학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기반의 새로운 연구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미래 직업수요가 예측되는 전문분야 연구 및 인재양성 대학원
- 10) **글로벌해킹방지대학원**: IoT 기반의 미래 사회·문화 환경에 부응하여 정보/보안과 해킹 방지를 글로벌 차원에서 연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 5. 맺음말

본 제안서는 대학원별 중장기발전계획안과 제1기 미래위원회보고서를 기초로 제2기 미래위원회 활동을 통해 새롭게 조사·연구된 내용을 통합한 것이며, 대한민국사회의 변화된 현실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면서 선도적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학원간의 정원조정 등을 통한 신설 대학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기존 특수대학원의 미충원율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되며, 일반대학원의 경우도 지난 5년간 입학생이 연 5명 내외인

학과가 총 50개 학과 중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별첨자료3>). 본교출신 장학금의 집행 결과가 심히 의심되는 부분이다. 해당 학과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일반대학원 차원에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학생 수가 적다보니 수업 진행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진작시키거나 국제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상황이다.

국제화지수 향상의 필요성은 일반대학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문대학원인 법학전문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의 경우도 대학원생들의 연구업적을 통계수치화하기 힘들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화지수의 향상 없이는 대학원생 개인의 진로도 보장할 수 없으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사업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별첨자료 1>에서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외대 8개 대학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기존의 학부 학과 중심의 대학원 학과 운영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모든 대학원이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8개 대학원 간의 학점 교류도 거의 시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대학원의 유사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각 대학원별로 개설하는 공통과목에서 전공과목을 대체 이수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대학원-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최근 정부사업 동향에 보조를 맞추어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외대의 대학원 중 최근 기사화된 대학원은, 본 집필진이 발견한 것으로는 TESOL 대학원이 유일하다. 이는 외대 대학원 전체가 대한민국사회에서 관심권 밖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각 대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학교와 재단 측에서도 학부에 보인 관심의 절반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8개 대학원 전체 정원은 연 1479명이며, 등록금은 매년 약 250억 정도 된다. 그동안 외대가 대학원 발전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sup>2)</sup>

대학 본부의 관심과 투자없이 외대 대학원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외대 대학원은 학부에 부속된 기관이 아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 참고로 학부는 등록금 수납액이 년 간 약 1200억 정도에 달함.



<별첨자료>

1. 2016 BK21플러스 주요 대학 선정결과
2. 전국 주요 대학 신입생 충원율
3. 최근 5년간 외대 일반대학원 신입생 합격자 현황
4. 최근 3개 학기 외대 대학원 등록 현황

<별첨자료 1> 2016 BK21플러스 주요 대학 선정 결과(2016. 1. 현재)

연번	대 학 명	사업단 수	사업팀 수	합계
1	서울대학교	28	12	40
2	성균관대학교	21	10	31
3	부산대학교	19	12	31
4	연세대학교	20	8	28
5	고려대학교	21	6	27
6	경북대학교	14	10	24
7	충남대학교	10	13	23
8	전남대학교	9	12	21
9	한국과학기술원	15	4	19
10	전북대학교	8	9	17
11	경희대학교	7	8	15
12	이화여자대학교	6	9	15
13	한양대학교	3	12	15
14	중앙대학교	2	12	14
15	포항공과대학교	11	1	12
16	강원대학교	3	9	12
17	영남대학교	2	10	12
18	건국대학교	3	7	10
19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1	9	10
20	서강대학교	0	10	10
21	경상대학교	6	3	9
22	충북대학교	5	3	8
23	부경대학교	3	5	8
24	아주대학교	4	3	7
25	국민대학교	3	4	7
26	울산과학기술원	2	5	7
27	단국대학교	4	2	6
28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2	4	6
29	울산대학교	2	4	6
30	조선대학교	1	5	6
31	세종대학교	0	6	6

<별첨자료 2> 전국 주요 대학 대학원 별 신입생 충원을 세부현황(2015. 12. 기준)

한국의국어대학교	신입생충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91.5	일반
국제지역대학원	74.5	전문
통번역대학원	100.0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90.0	전문
교육대학원	100.5	특수
경영대학원	78.1	특수
TESOL대학원	126.7	특수
정치행정언론대학원	32.5	특수

서울대학교	신입생충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86.7	일반
국제대학원	107.5	전문
보건대학원	92.7	전문
행정대학원	87.2	전문
환경대학원	100.0	전문
치의학대학원	90.4	전문
경영전문대학원	86.0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104.1	전문
융합과학기술대학원	81.5	전문

중앙대학교	신입생충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91.6	일반
국제대학원	84.6	전문
첨단영상대학원	92.2	전문
경영전문대학원	54.6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96.7	전문
사회복지대학원	52.9	특수
건설대학원	97.3	특수
교육대학원	107.1	특수
행정대학원	88.0	특수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100.0	특수
신문방송대학원	84.3	특수
예술대학원	88.8	특수
건강간호대학원	88.0	특수
심리서비스대학원	52.0	특수

연세대학교	신입생충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84.1	일반
사회복지대학원	104.9	전문
국제학대학원	82.6	전문
정보대학원	90.3	전문
연합신학대학원	94.1	전문
경영전문대학원	86.4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102.3	전문
커뮤니케이션대학원	102.9	전문
경제대학원	101.0	특수
교육대학원	102.1	특수
법무대학원	61.9	특수
보건대학원	99.2	특수
생활환경대학원	104.0	특수
언론홍보대학원	92.4	특수
행정대학원	93.9	특수
간호대학원	98.0	특수
공학대학원	98.1	특수

성균관대학교	신입생충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100.7	일반
경영전문대학원	97.3	전문
중국대학원	75.0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98.8	전문
국정관리대학원	108.6	전문
수자원전문대학원	56.7	전문
교육대학원	100.0	특수
유학대학원	110.0	특수
경영대학원	87.4	특수
디자인대학원	81.3	특수
사회복지대학원	85.7	특수
언론정보대학원	95.8	특수
임상약학대학원	68.8	특수
정보통신대학원	81.3	특수
생활과학대학원	79.2	특수
번역·TESOL대학원	75.0	특수
국가전략대학원	100.0	특수
임상간호대학원	114.0	특수
문화융합대학원	80.0	특수
글로벌창업대학원	160.0	특수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66.7	특수

고려대학교	신입생총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91.3	일반
국제대학원	86.8	전문
정보보호대학원	112.8	전문
경영전문대학원	90.7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106.2	전문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93.3	전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118.4	전문
KU-KIST융합대학원	85.0	전문
교육대학원	99.1	특수
생명환경과학대학원	101.4	특수
정책대학원	89.6	특수
공학대학원	82.0	특수
언론대학원	103.9	특수
노동대학원	101.8	특수
법무대학원	91.9	특수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79.7	특수
보건대학원	98.0	특수
임상치의학대학원	74.4	특수

경희대학교	신입생총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97.1	일반
국제대학원	83.6	전문
체육대학원	105.5	전문
동서의학대학원	101.7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102.9	전문
의학전문대학원	100.0	전문
치의학전문대학원	100.0	전문
공공대학원	89.4	특수
법무대학원	53.2	특수
경영대학원	116.7	특수
관광대학원	100.0	특수
교육대학원	107.8	특수
언론정보대학원	91.7	특수
테크노경영대학원	76.7	특수
아트퓨전대학원	88.9	특수
평화복지대학원	50.0	특수

한양대학교	신입생총원율	구분
일반대학원	101.1	일반
도시대학원	82.4	전문
국제학대학원	42.0	전문
경영전문대학원	91.4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97.4	전문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84.8	전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94.5	전문
공학대학원	80.6	특수
공공정책대학원	86.1	특수
교육대학원	89.4	특수
언론정보대학원	81.4	특수
국제관광대학원	84.0	특수
임상간호정보대학원	94.2	특수
부동산융합대학원	138.7	특수

<별첨자료 3> 최근 5년간 외대 일반대학원 신입생 합격자 현황

연번	구 분	석사	박사	석·박통합	총계	비고
1	스칸디나비아어문학과	0	0	0	0	
2	글로벌다형지식융합전공	2	0	0	2	2016신설
3	아프리카어문학과	2	0	0	2	
4	정보통신공학과	4	1	0	5	
5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과	6	2	0	8	
6	전자공학과	10	0	0	10	
7	포어포문학과	10	0	0	10	
8	동유럽어문학과	11	0	0	11	
9	수학과	10	0	1	11	
10	이어이문학과	11	0	0	11	
11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5	3	3	11	
12	산업경영공학과	10	2	1	13	
13	비교문학과D	0	16	0	16	
14	외국어로서 한국어 번역전공	14	2	0	16	
15	중국어문학과	16	1	1	18	
16	글로벌스포츠학과	21	0	0	21	
17	불어불문학과	16	5	0	21	
18	노어노문학과	15	7	0	22	
19	동남·남아시아어문학과	22	0	0	22	
20	물리학과	10	12	1	23	
21	국제통상학과	20	4	0	24	
22	행정학과	12	14	0	26	
23	경영정보학과	18	9	0	27	
24	독어독문학과	17	8	3	28	
25	사학과	22	7	0	29	
26	전자정보공학과(구)	29	0	1	30	
27	철학과	14	16	2	32	
28	환경학과	20	11	4	35	
29	생명공학과	29	6	2	37	
30	언어인지과학과	25	13	1	39	
31	컴퓨터및정보통신공학과(구)	32	6	3	41	
32	스페인어문학과	37	5	0	42	
33	통계학과	43	1	1	45	
34	경제학과	22	28	0	50	
35	국제관계학과	33	16	2	51	
36	화학과	38	12	1	51	
37	정치외교학과	40	14	0	54	
38	영어번역학과	46	9	3	58	
39	영문학과	45	22	0	67	
40	법학과	36	49	1	86	
41	국제경영학과	45	43	0	88	
42	신문방송학과	64	32	0	96	
43	TESOL학과	69	36	0	105	
44	중어중문학과	68	37	3	108	
45	경영학과	77	58	0	135	
46	정보·기록학과	110	27	0	137	
47	영어학과	116	34	3	153	
48	일어일문학과	112	49	7	168	
49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89	85	5	179	
50	국어국문학과	204	88	0	292	
	총 계	1,727	790	49	2,566	

<별첨자료 4> 최근 3개 학기(2015-1부터) 외대 대학원 등록 현황(금액단위: 원)

구 분		2015학년도 1학기					
		편제 정원	등록 인원	등록률	미충원 수	등록금액	재정손실액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660	537	81%	123	4,313,000	530,499,000
	통번역대학원	300	322	107%	-22	5,647,000	-
	국제지역대학원	260	214	82%	46	4,918,000	226,228,000
	법학전문대학원	150	151	101%	-1	9,055,000	-
	교육대학원	525	461	88%	64	4,066,000	260,224,000
	경영대학원	430	290	67%	140	4,692,000	656,880,000
	정치행정언론대학원	193	58	30%	135	4,066,000	548,910,000
	TESOL대학원	90	84	93%	6	4,566,000	27,396,000
	계	2,608	2,117	81%	491	n/a	2,250,137,000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330	265	80%	65	4,313,000	280,345,000
	통번역대학원	20	19	95%	1	5,425,000	5,425,000
	국제지역대학원	70	65	93%	5	4,918,000	24,590,000
	법학전문대학원	20	3	15%	17	4,826,000	82,042,000
	계	440	352	80%	88	n/a	392,402,000
총계(석사 + 박사)		3,048	2,469	81%	579	n/a	2,642,539,000

구 분		2015학년도 2학기					
		편제 정원	등록 인원	등록률	미충원 수	등록금액	재정손실액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660	540	82%	120	4,313,000	517,560,000
	통번역대학원	300	318	106%	-18	5,647,000	-
	국제지역대학원	260	222	85%	38	4,918,000	186,884,000
	법학전문대학원	150	147	98%	3	9,055,000	27,165,000
	교육대학원	525	422	80%	103	4,066,000	418,798,000
	경영대학원	430	281	65%	149	4,692,000	699,108,000
	정치행정언론대학원	193	39	20%	154	4,066,000	626,164,000
	TESOL대학원	90	70	78%	20	4,566,000	91,320,000
	계	2,608	2,039	78%	569	n/a	2,566,999,000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330	264	80%	66	4,313,000	284,658,000
	통번역대학원	20	19	95%	1	5,425,000	5,425,000
	국제지역대학원	70	71	101%	-1	4,918,000	-
	법학전문대학원	20	4	20%	16	4,826,000	77,216,000
	계	440	358	81%	82	n/a	367,299,000
총계(석사 + 박사)		3,048	2,397	79%	651	n/a	2,934,298,000

구 분		2016학년도 1학기					
		편제 정원	등록 인원	등록률	미 충 원 수	등록금액	재정손실액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660	547	83%	113	4,313,000	487,369,000
	통번역대학원	300	319	106%	-19	5,647,000	-
	국제지역대학원	260	189	73%	71	4,918,000	349,178,000
	법학전문대학원	150	156	104%	-6	9,055,000	-
	교육대학원	525	445	85%	80	4,066,000	325,280,000
	경영대학원	414	276	67%	138	4,692,000	647,496,000
	정치행정전문대학원	175	31	18%	144	4,066,000	585,504,000
	TESOL대학원	120	84	70%	36	4,566,000	164,376,000
	계	2,604	2,047	79%	557	n/a	2,559,203,000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330	276	84%	54	4,313,000	232,902,000
	통번역대학원	20	18	90%	2	5,425,000	10,850,000
	국제지역대학원	70	70	100%	-	4,918,000	-
	법학전문대학원	20	4	20%	16	4,826,000	77,216,000
	계	40	368	84%	72	n/a	320,968,000
총계(석사 + 박사)		3,044	2,415	79%	629	n/a	2,880,171,000

미등록으로 인한 손실액(2015년 1학기 ~ 2016년 1학기)	
(금액단위: 원)	
2015-1학기	2,642,539,000
2015-2학기	2,934,398,000
2016-1학기	2,880,171,000
합계	8,457,108,000
평균	2,819,036,000

연구보고(2016-003)

# 싱크탱크 기능 활성화 방안

책임자 : 김 원 호

집필자 : 권 원 순



## 【목차】

연구보고(2016-003)  
〈싱크탱크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요약 .....	39
1. 들어가는 말 .....	40
2. 외대 연구소 현황 .....	40
3. 타 대학교 연구소 현황 .....	42
4. 외국연구소 사례 .....	43
5. 외대 연구소 특성화 방안 .....	44
6. 나오기 .....	48

## 【연구요약】

### <싱크탱크 기능 활성화 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논문집 (교내학술지) 발간 등의 주요 업무 개선 필요
- 사회적 이슈와 수요를 반영한 연구소 활성화 필요
- 재정자립 측면의 제도 개선 필요
-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및 학부 및 대학원과의 학문적 연계 강화 필요

#### 2. 개선 방향 및 실행 방안

##### 가. 개선 방향

- 융복합 개념을 적용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싱크탱크 신설
- 연구소 업무의 개선과 기능강화 및 조정을 통한 통폐합
- 연구소 지원 행정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 수립
- 연구소의 싱크탱크화 방안 검토

##### 나. 실행방안

- 컨퍼런스, 심포지엄, 포럼 등의 연구소 활동 정례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의 네트워크 구축과 재정기반 마련
- 연구소별 정기 간행물 등의 발간 개선과 홍보기능 제고
- 연구소의 연구위원, 연구원 등의 인적자원의 다양화

#### 3. 추진 일정

- 단기(2016~17): 업무 분석, 기능강화, 행정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 수립
- 중기(2018~21): 융복합 싱크탱크 신설 및 운영
- 장기(2022~25): 학부/대학원/연구소의 유기적 결합 강화

## 1. 들어가는 말

급속한 글로벌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무선인터넷,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비롯한 기기 간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융복합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대학진학 인원이 20만명 정도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 인원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수행해야하는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 대학의 연구소가 수행해야할 연구와 학문적 업적의 창출과 이의 확산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질수밖에 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기존 연구소들의 기능 조정 및 활성화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2~3개 정도의 새로운 싱크탱크의 설립과 발전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존 연구소들의 현황과 기능을 파악해 보고 국내외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이를 우리 대학의 연구소와 싱크탱크 활성화에 적용해 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 2. 외대 연구소 현황

### 가. 4개 연구센터 29개 연구소

우리 대학은 현재 외국어문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문분야연구센터, 융합연구센터 등의 4개 연구센터 하에 어문학, 지역학, 학과기반의 29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 산하에 43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표 1] 참조)

[표 1] 외대 연구소현황(2016. 6. 현재)

외국어문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문분야 연구센터	융합연구센터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통번역연구소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중동연구소 영미연구소 중남미연구소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EU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인도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경제경영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차세대도시·농림융합 기상사업단

#### 나. 연구소의 특징과 수행사업

29개 연구소는 대부분 학과 혹은 전공영역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연구논문집(교내학술지) 발간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별로 학술대회의 개최나 연구발표회와 초청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 연구소 별 혹은 연구그룹 별로 강독회와 콜로키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비를 수주한 경우에 소식지 발간이나 연구정보 제공 등의 부가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연구소 수행사업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논문집 (교내학술지) 발간
- 학술대회, 세미나, 연구발표회, 초청강연회, 강독회, 콜로키움 등의 활동
- 연구총서, 정기간행물, 자료집 등 발간
- 관련 자료 수집, 번역
- 학술진흥재단 등 연구사업 수행
- 학문후속세대 양성, 학부와 학문적 연계
- 국내·외 연구기관 교류, 시민문화강좌

### 3. 타 대학교 연구소 현황

#### 가. 서울대학교 연구소

서울대학교는 본부 주관 연구소 8개와 단과대학 및 대학원 주관 연구소 7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소 산하에 센터 및 사업단(BK, HK 등)을 설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소 운영은 각 연구소 별로 행정실을 설치하고 행정실장 및 직원을 배치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임, 객원, 초빙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두고 있으며 연구소 별로 의사결정을 위한 각각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소 별로 교수를 연구위원으로 배치하고 연구소의 개별 업무를 분장하여 연구위원이 관장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소는 우리 대학과 비슷하지만 영문과 국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연구소에서 관련 전문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 연구소 별로 아카데미, 캠프, 네트워크, 리더십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연세대학교 연구소

연세대학교는 대학교 부설 45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부설 24개, 단과대학간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원) 12개 등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소 운영 특징은 연구원-연구소-연구센터의 위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산하에 우리 대학과 유사하게 사업단(BK, HK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별로 행정실을 설치하고 행정실장 및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연구소들은 전문, 객원, 초빙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두고 있다

이외에 연구소 별 의사결정을 위해 각각의 연구소와 관련된 학과와 연계하여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소 별로 교수를 연구위원으로 배치하고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소는 우리 대학과 비슷하지만 관련 자료실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연구소 별로 리더십과정, 협동과정 등을 운영하고 이를 수익사업화하고 있다.

#### 다. 고려대학교 연구소

고려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단과대학별로 50 여개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모든 연구소가 단과대학 산하에 편제되어 있고, 사업단 (BK, HK 등)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는 연구소 별로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전문, 객원, 초빙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두고 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사결정 기구와 조직을 각각의 학과와 연계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소 별로 교수를 연구위원으로 배치하고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고려대의 연구소는 우리 외대와 비슷하지만 관련 학부 및 학과와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소 별로 리더십과정, 협동과정, 고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4. 외국연구소 사례

##### 가. 외국의 민간 연구소(Brookings, Heritage 등)

우리 대학의 싱크탱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외국 연구기관들을 살펴본 결과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별된 다양한 연구위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또한 의사결정과 연구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분리된 운영 및 연구 조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연구조직의 운영 특징으로 Issues, Topics, Research, Program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연구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연구를 위한 조직의 편제는 연구위원, 전임, 객원, 초빙 연구원과 연구원을 두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과 경영을 위한 조직을 이원화 하고 기금유치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Program 별로 연구위원을 배치하고 각각 Issues 및 Topic을 관장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들 민간 연구소의 업무는 Book, Report, Working Paper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미디어로 이용하여 Pop-Up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ommentary, Blog Post, Opinion 등을 활용하여 Issues와 Topic을 선도하고 있다.

## 나. 외국대학 연구소 사례

외국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혹은 학과 편제에 포함된 형태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즉, 단과대학 산하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학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특히 학사 이상의 학위를 위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면서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대학본부 편제에 포함된 연구소들은 독립된 형태로 민간연구소와 유사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연구소가 학과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 교과목 개설과 학위 수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조직을 운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외국대학의 연구소들은 국내의 타 대학들과 유사하게 전임, 객원, 초빙 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학과 단위에 전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연구소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소가 각각의 연구소 별로 전임교수를 두고 있다.

외국대학의 연구소는 저널을 발간하거나 출판물을 발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연구소 별로 협동과정이나 인턴십 등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Stanford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분야의 연구소체계를 가지고 있다.

ex.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소 체계

- . Environment + Climate
- . Chemistry + Biology
- . Energy + Physics + Materials + Space
- . Medicine + Healthcare
- . Culture + Economics

각각의 개별 연구소들이 위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구축 운영

## 5. 외대 연구소 특성화방안

### 가. 특성화 기본 방향

우리 외대 싱크탱크는 외대만이 할 수 있는 연구 및 학문적 업적을 축적하고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 연구소 단위가 통합적으로 이슈와 토픽을 매년 선정하고 이를 연구소 개별 혹은 융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연구과제는 사안과 특성에 따라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연구 주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주제 중 필요한 경우는 연구소가 연구를 수행하며 대학원생의 논문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석·박사 과정을 연구소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 혹은 융복합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 리스트의 주제 중에서 이슈화하거나 토픽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수요와 관심에 주목하여 연구소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향후 연구소의 경쟁력 분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ex. 이란 혹은 중동과 관련한 이슈를 선점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비 유치 등에 활용)

소위 “당장 돈이 되는” 연구 보다는 사회적 관심과 연구결과외 사회 기여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연구기금유치가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당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연구주제 선정으로 연구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외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소를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노출되는 이슈와 이벤트를 통한 연구소 평판도와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대 연구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목이 외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므로 연구소가 수행하는 주요 이슈와 토픽 관련 초빙강연 혹은 회의가 언론에 노출되도록 교내부서 및 연구소 간의 협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익 및 재정확보와 연계한 연구소 운영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블루오션 및 레드오션으로 나뉘는 연구 수요의 틈새를 이용하고, 꼭 필요한 연구기능을 검토하여 연구소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연구기금 유치가 가능한 연구소 보다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연구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아카데미, 캠프, 네트워크, 리더십과정 등을 연구소 별로 운영하여 수익창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의 기능에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외대의 학부 혹은 대학원에 설치되지 않은 석사과정 전공 운영을 연구소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교내 대학원생 혹은 졸업생의 연구소 근무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소 별로 협동과정이나 인턴십등의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ex. 보조연구원 혹은 연구원 등의 제도 정착 )

## 나. 활성화 기본방안

우리 외대의 연구소들의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대학 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교내저널 발간을 편집과 출판으로 나누어 지식출판원 등에 이관하고 이를 통해 연구소 업무부담을 줄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소의 연구 및 학문적 업적의 지적재산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캠퍼스 별로 모든 연구소를 지원하는 행정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가칭 연구소 종합행정지원팀)

또한 앞서 언급한 연구소 강화 방안과 함께 연구소 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업무분석, 기능강화, 행정체계 구축 및 발전방안 수립과 함께 연구소 기능의 조정을 통한 연구소의 싱크탱크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대의 연구 및 학문적 업적 축적 및 확산, “외대” 브랜드가치 제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 수익 및 재정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화, 기후변화, 개발경험공유, 산업 등의 분야를 기존 연구소의 기능에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 개도국의 도시화와 관련한 지역학, 어학, 공학 등을 연계한 연구소 특성화를 검토할 수 있음)

연구소별로 자율적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소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연구소 활성화가 필요하다

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싱크탱크를 육성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소 외에 국책연구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대표 연구소 2~3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 기관은 현재 부처별로 필요한 정부부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주제의 특성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이 감당하지 못하거나 민간 특히, 학교가 해야 하는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특수 외국어 지역을 겨냥한 융복합적 접근의 싱크탱크 육성 방안  
“개발협력 연구소”  
(해당 지역연구소와 글로벌경영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등 통합 혹은 협업)
- 인문학과 지역학을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싱크탱크 육성 방안  
“아시아 메트로폴리탄(대도시) 연구소” or “아시아 녹색 스마트도시 연구소”  
(해당 지역연구소와 경제경영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등 통합 혹은 협업)
- 외대의 경쟁력 분야인 인문학과 공학의 융복합 싱크탱크 육성 방안  
“Institute of the *confusionence*” 또는 “외대 융복합연구소”  
(인문학과 지역학, 공학 연구소 등 통합)
- 외대의 경쟁력 분야인 언어 분야를 공학분야와 융복합하는 싱크탱크 육성방안  
“글로벌 언어 연구소 (AI 혹은 Robo Language)”  
(언어연구소 등 언어 분야와 인문학 공학 등을 통합 혹은 협업)

#### 다. 활성화 실행 방안

외대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연구소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연구소 관련 회의를 내용과 형식을 정하여 연구소의 컨퍼런스,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 구분하여 실행하여 연구소의 활동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 회의 형식 그 자체를 외대만의 회의 형식을 갖 추도록 하여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 (외대가 하는 회의 형식 자체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음)

위의 회의 등을 비롯하여 산학협력단의 오버헤드와 자체 수익사업으로 마련된 재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대응자금을 유지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소 별로 산재한 정기 간행물을 어느 정도 정리하여 각 연구소 별로 최소한 발간하기 위해 학술지에 집중하고, 소식지 혹은 연구 동향 및 지역 동향 등은 통합적

혹은 종합적 매체를 통해 발간하는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별 홈페이지와 e-book 등을 활용하여 연구소의 발간물 혹은 간행물을 발행하고, 초청강연 혹은 초빙강연을 앞에 언급한 이슈와 토픽에 맞게 실행하고,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홍보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외대 연구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연구소 별로 일년 1회 국내 및 해외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방식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와 관련된 국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리즈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기본재원(약 1천만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관의 재정지원유치에 의해 실행하고, 인지도 제고와 연구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연구소 별로 협력기관과 MOU를 추진하여 국내외 연구소와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지속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내 교수 전원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필요한 인원의 중복을 허용하여 연구소 별로 연구위원으로 배정하고, 외대 및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유무급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다.

## 6. 나오기

우리 대학의 연구소가 처한 상황을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타 대학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회적 변화와 수요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외대의 연구소 기능의 활성화와 조정, 융복합 개념의 싱크탱크 등의 신설과 운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내외적인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발 앞서는 대응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리 대학의 연구소 활성화 및 싱크탱크 신설 방안은 다양한 교내외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과 방향을 수립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소 및 싱크탱크 활성화 방안의 수립으로 우리 대학의 명성에 걸맞은 연구와 학문적 업적의 창출과 확산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부합하는 외대만이 할 수 있는 연구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 대학의 위상제고와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연구보고(2016-004)

# 스마트 해외캠퍼스 운영 방안

책임자 : 김 원 호

집필자 : 정 상 철

## 【목차】

연구보고(2016-004)  
〈스마트 해외캠퍼스 운영 방안〉

연구요약 .....	51
1. 들어가는 말 .....	52
2. 타 대학 현황 .....	53
3. 한국외대 스마트 해외 캠퍼스의 기본취지와 방향 .....	57
4. 기본구상 .....	57
5. 잠재적 해외학습 대상자 .....	58
6. 콘텐츠 개발 .....	59
7. 나오기 .....	60

## 【연구요약】

### <스마트 해외캠퍼스 운영 방안>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대학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불리는 스마트캠퍼스는 사물인터넷(IOT) 등 ICT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내외에서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의 교육수요도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대학 교육환경을 말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스마트 해외캠퍼스는 주로 해외의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외국어와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잠재력을 활용해 실질적인 ONLINE/OFFLINE 교육이 가능한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기본방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교육 모델 구축, 학교 위상과 역량 제고 및 부수적 수익 창출, 장차 인바운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설립목표를 설정하여 미래 교육을 대비하도록 한다.

교육방법은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기타 모바일 디바이스를 학습 환경에서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학습자들 사이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어, 외대도 이에 걸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y - Google Glass 등), 그 이외의 IoT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제는 교육부의 방침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국외의 교육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O2O(Online To Offline)방식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2+2(국외에서 2년 Online교육과 국내 본교에서 2년 Offline교육)제도나 1+3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외대 스마트캠퍼스의 잠재적 해외거주 학습대상자로는 크게 중국수험생, 해외교포, 한류관계 등의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외대 스마트 해외캠퍼스에서 사용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 1. 들어가는 말

최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학도 교육과 학습에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 강의실도 대학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추어 이동성, 유연성,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 등이 가능하고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NMC Horizon Report(2015)에 의하면 현재 핵심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하고 있다.

- 가. 고등교육 기관에도 변화와 혁신의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
- 나. 고등교육 기관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전략적으로 제휴해야 한다.
- 다. 고등교육 기관도 학습 분석을 통한 평가 등의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 학생 평가(학습 측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은 대학이 단순히 기존의 콘텐츠 전달에 치중하는 것을 넘어서 학문과 행정 서비스 개선이라는 한 단계 높은 목표로 발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학에 OER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낮은 인식 수준 제고(설문 응답자의 5.1%만이 OER을 ‘아주 잘 안다’고 응답)와 접근성 이슈(검색 도구의 불편함, 종합적인 카탈로그의 부재)가 해결되어야 한다.
- 마.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은 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혼합 교육을 채택할 경우 교수는 사회 활동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바. 대학 강의실도 대학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추어 이동성, 유연성,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 가능 등이 강조된 상호작용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대학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불리는 스마트캠퍼스는 사물인터넷(IoT) 등 ICT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내외에서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의 교육수요도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대학 교육환경을 말한다.

교육부도 지난 3월30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설립및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 교육 수요뿐만 아니라 내국인 유학수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대학 해외진출’의 길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선도해온 국내 최고의 대학’이다. 하지만 학문과 실용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보다 고급화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현재 외대가 처한 상황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대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스마트 해외캠퍼스라는 교육체계에 대한 쇄신안을 제시함으로써 외대의 교육과정이 다시금 국내외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이루어졌다.

## 2. 타 대학 현황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마트 해외캠퍼스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 캠퍼스에 대한 타 대학이나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국내외 주요 대학, 사이버대학 및 국제적인 기업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캠퍼스 혹은 MOOC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외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스마트이러닝(SMART E-Learning)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캠퍼스는 스마트이러닝 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 등이 포함되는 다양한 시도로 주목된다.

- 서울대학교 : 아루바코리아(대표 김세진)는 자사의 무선랜 솔루션을 구축해 ‘SNU-스마트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조성. 이로써 교직원 및 학생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무선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e-러닝 서비스 강화 및 스마트 캠퍼스용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 또한 무선 장비의 통합관리 및 네트워크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아루바 에어웨이브(Air Wave)를 도입. 인증서버에는 방문객 관리를 돕는 게스트 솔루션 및 모바일 기기 관리를 돕는 퀵커넥트(Quick Connect) 기능을 지원하는 클리어패스(Clear Pass)를 구축
- 고려대학교 : SK텔레콤와 손잡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ity)을 적용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보유한 캠퍼스 구축. 씽플러그(Thing Plug), 위치측정시스템 구축,



Cloud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 IoT 서비스를 만들고 개선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가 특징

- 한동대학교 : 스마트·핀테크 캠퍼스를 구축하여 NFC(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학생증을 사용하여 셔틀버스 탑승, 수업출석 체크, 구내식당결제, 도서대출, 열람실 좌석선택 등을 이용
- 한림대학교 : LG-CNS와 협력하여, 스마트카드 신분증 하나로 학내시설 이용에서 전자상거래, 교통카드까지 해결하는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현
- 이화여자대학교 : 시스코 솔루션으로 기가 와이파이를 구축해 최고 수준의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구현
- 한양대학교 : 사물인터넷 전문기업인 그립(사장 정연규)과 같이 첨단 스마트 캠퍼스 구축. 그립의 Z-Wave 기술과 UWB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 센싱 기술을 검증
- 동아대학교 :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전자도서관 이용가능. 도서관은 전자책의 대출·예약·연장신청, 희망도서 신청, 신작도서와 인기도서, 권장도서의 정보, 도서관 실시간 좌석현황, 각종 게시판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인천대학교/연세대 송도캠퍼스 : 인천의 송도를 스마트도시화
  -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인천대나 연세대 송도 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 중. 태양광, 풍력, 지열 등 110여 종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 캠퍼스 구현
  - 대규모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해 편리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도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
- 건국대학교 :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교육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캠퍼스(모바일 캠퍼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KT와 체결. 학생들은 캠퍼스 안팎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수강신청과 모바일강의콘텐츠 수강 등 학사업무와 도서 정보 검색과 열람 등이 가능. 또 아이패드 등 태블릿PC를 활용한 e-클래스(Class) 강의 모델을 개발하고 모바일 검색이 가능한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

#### 나. 해외캠퍼스

저출산 여파가 대학 입학희망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대학에서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타개책으로 해외 캠퍼스에서 들

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 경북대학교 : IT 분야
- 인하대학교 : 엔지니어링 분야
- 동서대학교 : 문화콘텐츠 분야
- 이화여자대학교 : 미국과 중국 진출 프로젝트를 공개

입학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에서도 해외 캠퍼스 설립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예로 충북대학교는 중국 연변대학과 공동으로 2017년9월 개교를 목표로 훈춘지역에 국제캠퍼스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호경그룹과 공동으로 중국 서안지역에 국제 캠퍼스, 몽골국제대학과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에 대학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 사이버대학교

국내 사이버대학들도 포화상태에 도달되어 수강생이나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21개의 사이버대학들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예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도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으로는 글로벌코리아과정(GK)을 준비하고 있으며 GK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외국 거주자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류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라. 일본대학의 사례

일본 대학의 경우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 이러닝을 시작으로 하나의 분야를 특화시키는 이러닝이나 해외대학과의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 학습원대학교 : 아시아 네트워크 캠퍼스
- 교토정보대학원대학교 : 일한 사이버 캠퍼스구축
- 전주대학교 : 국제간 네트워크 이용 공동사업
- 일본대학교 : 글로벌 과학기술자 육성/국내외대학 연계 사이버 캠퍼스 정비사업
- 후지타보건위생대학교 : 신 의학/의료 교육연구를 위한 이러닝 시스템 정비
- 관서대학교 : 광대역망을 이용한 중국어교육/중국어 연구의 실천

- 히로시마수도대학교 : 유비쿼터스시대의 원격교육

마. 기업의 사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이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수업을 온라인 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2012년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받아, 최근에는 플랫폼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MOOC의 1세대 기업으로는 유다시티, 코세라, 에덱스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 코세라(Coursera) : 미국의 교육 및 기술 회사이다. 2012년 2월 시험 운영을 하였고 당해 4월 공식적으로 운영하였다. 스탠포드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교수 Andrew NG와 Daphne Koller가 비싼 등록금을 내지 못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유로운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설립하였다. 이들 강의에는 다양한 여러 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45여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고 개설과목이 2,000 여 개이며 현재 2,000 여 만 명이 수강 중이다.

- 에덱스(edX) : 가장 개방적이고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온라인 공개 강좌(MOOC) 업체.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탑재되어 영상과 자막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00 여개의 대학 및 기업, 기관들이 참가하고 있고 개설과목수가 1,000 여 개가 넘으며 수강생은 600 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 유다시티(Udacity) : 1세대 MOOC 기업 중 하나이다. 하버드대, MIT, 스탠포드대 등 미국의 권위 있는 우수 대학에서 유다시티에 학교 강의를 공개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과 교육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관심의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에 유다시티에서는 대학 수업을 녹화해 보여주는 것을 넘어, 아예 스튜디오에서 MOOC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등 여타 MOOC 기업들과 차별화된 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 3. 한국외대 해외 스마트캠퍼스의 기본 취지와 방향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캠퍼스는 미래 교육기관이 주목해야만 할 차

세대 교육환경이다. 하지만 외대 스마트 해외캠퍼스는 주로 해외의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과 설립 취지를 설정하여 미래 교육을 대비하도록 한다.

#### 가. 기본방향

우리대학의 교육역량(외국어와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잠재력을 활용해 실질적인 OFFLINE/ONLINE 교육이 가능한 글로벌대학으로 도약

#### 나. 취지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교육 모델 구축
- 학교 위상과 역량 제고 및 부수적 수익 창출
- 인바운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다. 협력체제

네덜란드의 OUNL(Open University of the Netherlands), 말레이시아의 OUM(Open University of Malaysia), 태국의 TCU(Thailand Cyber University) 등 국제적인 우수 온라인 대학들과 협업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학점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 4. 기본구상

#### 가. 추진주체

스마트캠퍼스는 한국외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외대(사이버외대)와 해외대학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 나. 교육방법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기타 모바일 디바

이스를 학습 환경에서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학습자들 사이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어, 외대도 이에 걸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y - Google Glass 등), 그 이외의 IoT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국가별, 지역별로 인터넷 인프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글로벌 접근이 용이한 아마존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역별로 인터넷 속도 제한의 극복이 가능한 인터라넷을 활용하는 플랫폼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다. 학제

교육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학제는 국외의 교육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O2O(Online To Offline)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2+2(국외에서 2년 Online교육과 국내 본교에서 2년 Offline교육)제도나 1+3도 가능할 것이다.

#### 라. 허브(컨텍 포인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과 같이 지역별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잠재적 해외학습 대상자

스마트 해외캠퍼스의 잠재적인 학습대상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중국시장을 생각할 수 있다. 2016년 중국의 수험생은 940만 명인데 전문대학까지 포함하여 중국 대학의 정원은 약 700만 명이다. 따라서 약 240만 명이 대학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중 1%에 해당하는 학생만이라도 한국외대가 잠재적인 학습대상자로 흡수할 수 있다면 중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 벨라루스 등 극동아시아에 살고 있고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는 러시아 고려인 등 해외교포도 잠재적인 학습대상자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남미 또한 아시아권의 젊은이들이 잠재적인 학습대상자가 될 것이다.

## 6. 콘텐츠 개발

이하에서는 국내외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외대 스마트 해외캠퍼스에서 사용할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콘텐츠는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여 Io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개발자는 외대 교수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콘텐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 중국어 대학 : 중국어권 잠재적 학습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모든 콘텐츠
- 한국어 관련 : 러시아 각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해외거주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전통에 관한 콘텐츠. 남미와 아시아권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류에 관한 콘텐츠
- 다양한 언어 : 다음·네이버사전 등과 연동하여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 습득이 가능한 콘텐츠

또한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문화권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정년을 한 석학들을 발굴하여 강좌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7. 나오기

본 제안서에서는 위와 같이 외대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외대가 스마트 해외캠퍼스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여 점증하고 있는 국내외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본 제안서에서 제시한 외국어 교육 선도 대학의 명성에 걸맞은 스마트 해외캠퍼스 구축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언어교육을 원활하게 이루어 냄으로써 교육과정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Johnson, L., Adams Becker, S., Estrada, V., and Freeman, A. (2015). *MMC Horizon Report: 2015 Higher Education Edition*. Austin, Texas: The New Media Consortium.